



사회 >> 3면

100일 정국회 개막... 부동산·사법개혁·예산안 '격돌'

기획 >> 4면

발길이 닿지 않던 곳까지! 서경대 내외부 밀착 취재

현장르포 >> 5면

취향 아카이브: 서로 다른 일상의 즐거움

제603호

2026년 10월 22일(목)



뜨거운 열정으로 밝게 빛난 우리, 2026 청야체전 성료

지난 9월 14일, 개막제 'cosmo:us'를 시작으로, 2026 청야체전이 개최됐다. cosmo:us란 광활한 우주를 의미하는 Cosmos과 우리를 뜻하는 Us를 결합한 이름으로, 광활한 우주 속에서 각자의 빛을 내는 개개인이 하나로 모여 '우리'라는 은하수를 만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행사를 개최한 제54대 총학생회 CO:RE는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특히 스폰스퀘어 곳곳에 숨겨진 보물을 찾는 'MEOCHA CO:MELEON'을 진행했다. 찾은 코멜레온을 가지고 총학생회 부스에 방문하면 상품을 받을 수 있었으며, 1등 상품은 나이키 에어포스가 제공

돼 학우들의 이목을 끌었다. 또한 단 하루, 개막제에서만 찍을 수 있는 영수증 사진기 부스에는 특별한 순간을 친구들과 사진으로 남길 수 있어 학우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헤인관 앞 특설 무대에서는 동아리부터 소모임, 학부까지 총 7팀이 공연을 펼쳤다. 이어 추러스, 피자, 팟타이, 회오리감자 등의 푸드트럭과 총학생회의 돗자리 대여, 생맥주 무료 나눔까지 더해져 개막제의 흥을 돋우었다.

이날 공연을 즐긴 김윤정(미용125) 학우는 "개강의 스트레스를 한 번에 날릴 수 있었다"며 "공연팀들이 모두 멋있게 잘해서 볼거리가 많

았고, 학우들과 돗자리를 깔고 생맥주와 함께 공연을 보니 대학 생활이 즐거워지는 느낌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15일부터 18일까지는 4일간 청야체전(이하 체전)이 진행됐다. 체전 상금으로는 △종합 1위 50만 원 △종합 2위 30만 원 △종합 3위 20만 원 △종목 우승 10만 원으로 총 180만 원이 제공됐다. 이번 체전은 농구, 족구, 풋살, 피구, 발아구, 판뒤집기,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총 8개의 종목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학우들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 예상 종합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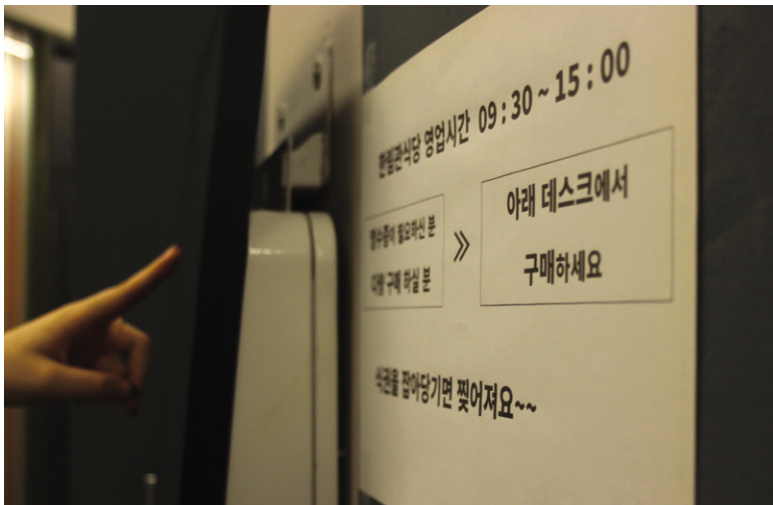
위 1·3·5위를 맞히는 '서경 777'도 마련됐다.

시상식은 체전 마지막 날인 18일에 진행됐다. 종합 우승은 농구, 발아구, 이어달리기, 족구, 피구 총 5개 종목에서 우승한 군사학과가 차지했다. 2위는 줄다리기, 판뒤집기를 우승한 스포츠엔터테인먼트학과가 차지했으며 3위는 공공인재학부가 뒤를 이었다. 풋살에서는 금융정보공학과가 우승했으며 종목별 우승팀은 각 10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

손서연 수습기자

(seoyeon802@skuniv.ac.kr)

우리대학 한림관 학식 7,500원으로 인상



우리대학 한림관 학생식당의 식사 가격이 기존보다 1,000원 인상된 가운데, 총학생회(이하 총학)가 협의 과정에서 소통 부족 속 단행된 이번 가격 인상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식당 측은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적자 누적과 식사 품질의 현상 유지를 인상 사유로 밝혔다. 총학 측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

해 협의 과정 공개를 신중히 고민했으나, 학생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향후 식당 운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그간의 경과를 명확히 밝히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총학이 공개한 협의 경과에 따르면, 식당 측은 올해 2월 말 기초 운영 비용 증가를 이유로 기존 가격에서 1,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처음 제시

했다. 이에 총학과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는 지난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인상 반대 의사를 전달하며 가격 인상의 근거가 될 기초 운영비용 세부 내역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식당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인상 근거 자료는 끝내 전달받지 못했다고 총학 측은 밝혔다.

협의 과정에서 총학은 무조건적인 인상 반대 대신 학생 실익을 고려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총학 측이 제시한 주요 대안으로는 △특식 제공 빈도 확대 △기존 뷔페식 형태에서 일별 단일 메뉴 운영 방식으로 전환 △한식(6,500원)과 학식+특식(7,500원) 가격 이원화 △전반적인 식사의 질 및 서비스 개선 등이 있었다.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학생들이 더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만큼 제한할 수 있는 식사의 질과 서비스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식당 측은 식당 운영이 이미 적자 상태임을 언급하며, 이번

가격 인상은 품질 개선이 아닌 현재 수준의 식사 품질과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현상 유지 목적의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구체적인 내역 검증과 충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가격 인상이 시행되면서, 총학은 인상 폭을 조정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밝혔다. 총학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가격 인상이 단행된 만큼 인상된 가격에 상응하는 품질과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되는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한림관 식당과의 협의에만 의존하지 않고, 학교 본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학생들을 위한 대체 식사 지원 방안 및 현실적인 차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필요할 때 편리하게, 비상 생리대 비치 사업 실시



우리대학 제54대 총학생회 CO:RE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교내 비상 생리대 비치 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생리대를 준비하지 못한 학생들이 급히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생리대는 '유기농본'의 지원을 받아 비치했으며, 사업 운영에 학생회비는 사용되지 않았다.

총학생회는 2026학년도 2학기 동안 비치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학생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비상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비치 장소는 △대입관 1층 △문예관 1층 △본관 2층 △북악관 지하 1층 △유담관 9층 △은주1관 5층 △청운관 1층 △한림관 3층 △헤인관 1층 여자 화장실이다. 학생들은 각 화장실 선반 위의 비치함에서 필요한 생리대를 비상시 이용할 수 있다.

급박한 학우를 배려하고 오남용을 막기 위해 한 번에 한 개씩만 사용해

야하며, 비치함 훼손 및 무단 반출은 삼가야 한다. 비치된 생리대는 매달 첫째 주 월요일에 보충된다. 또한 재고가 부족한 경우에는 총학생회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보가 가능하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갑작스럽게 생리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교내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 본 사업을 이용한 A(미용125) 학우는 "더 이상 곤란한 상황이 생기지 않게 됐다"며 "편안한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할 때 바로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고, 앞으로 비상 상황을 대비해 마음 졸일 일은 없

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비상 생리대 비치 사업은 급박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별도로 생리대를 구매하거나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교내 여러 건물에 비상 생리대가 마련된 만큼 학생들의 편의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수업이나 학교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까운 화장실에서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어 학생들의 불편을 덜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이어가는 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손서연 수습기자
(seoyeon802@skuniv.ac.kr)

사 령

10월 22일자로 아래 학우를 면합니다.

▶ 면 수습기자

박희린 (미용126)

세종대왕

일본 도쿠시마현 고토다 지사, 본교 찾아 “K-뷰티 인재 육성 기대”

지난 8월 일본 도쿠시마에서 진행된 ‘SKU 글로벌 서포터스’를 주최한 고토다 마사즈미 도쿠시마 지사가 우리대학을 방문했다. 고토다 지사 간담회는 9월 2일 오전 10시경 유담관 Co-working space 1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김범준 총장을 비롯해 주요 내외 귀빈들, 본교 미용예술대학 재학 일본 유학생, 글로벌 서포터스 단원들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고토다 지사는 먼저 우리대학 교수 이름을 한 분씩 부르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서경대학교에 방문하게 되어 굉장히 기쁘다”며, “일본의 교육부 같은 부처에서 가장 높은 분이 도쿠시마 출신인데, 그분을 꼭 서경대와 한국에 모시고 싶을 정도로 깊은 감명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고토다 지사는 우리대학 총장이 도쿠시마 학생들에게 본교에서 배울 기회를 마련해 준 것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특히 지난 방문 당시 교수진이 선보인 미용 예술 퍼포먼스가 현지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어 재방문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귀빈들, 본교 미용예술대학 재학 일본 유학생, 글로벌 서포터스 단원들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고토다 지사는 먼저 우리대학 교수 이름을 한 분씩 부르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서경대학교에 방문하게 되어 굉장히 기쁘다”며, “일본의 교육부 같은 부처에서 가장 높은 분이 도쿠시마 출신인데, 그분을 꼭 서경대와 한국에 모시고 싶을 정도로 깊은 감명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고토다 지사는 우리대학 총장이 도쿠시마 학생들에게 본교에서 배울 기회를 마련해 준 것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특히 지난 방문 당시 교수진이 선보인 미용 예술 퍼포먼스가 현지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어 재방문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귀빈들, 본교 미용예술대학 재학 일본 유학생, 글로벌 서포터스 단원들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고토다 지사는 먼저 우리대학 교수 이름을 한 분씩 부르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서경대학교에 방문하게 되어 굉장히 기쁘다”며, “일본의 교육부 같은 부처에서 가장 높은 분이 도쿠시마 출신인데, 그분을 꼭 서경대와 한국에 모시고 싶을 정도로 깊은 감명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고토다 지사는 우리대학 총장이 도쿠시마 학생들에게 본교에서 배울 기회를 마련해 준 것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특히 지난 방문 당시 교수진이 선보인 미용 예술 퍼포먼스가 현지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어 재방문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귀빈들, 본교 미용예술대학 재학 일본 유학생, 글로벌 서포터스 단원들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고토다 지사는 먼저 우리대학 교수 이름을 한 분씩 부르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서경대학교에 방문하게 되어 굉장히 기쁘다”며, “일본의 교육부 같은 부처에서 가장 높은 분이 도쿠시마 출신인데, 그분을 꼭 서경대와 한국에 모시고 싶을 정도로 깊은 감명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고토다 지사는 우리대학 총장이 도쿠시마 학생들에게 본교에서 배울 기회를 마련해 준 것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특히 지난 방문 당시 교수진이 선보인 미용 예술 퍼포먼스가 현지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어 재방문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귀빈들, 본교 미용예술대학 재학 일본 유학생, 글로벌 서포터스 단원들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고토다 지사는 먼저 우리대학 교수 이름을 한 분씩 부르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서경대학교에 방문하게 되어 굉장히 기쁘다”며, “일본의 교육부 같은 부처에서 가장 높은 분이 도쿠시마 출신인데, 그분을 꼭 서경대와 한국에 모시고 싶을 정도로 깊은 감명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나연 기자
(nykim0130@skuniv.ac.kr)

대학생과 주민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지역사회



우리대학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성북구 정릉1동, 김음1동 주민자치회와의 협약으로 ‘지역사회협력과 사회봉사’ 교과목(이하 지사협 봉사)을 신설했다. 지사협 봉사는 이수학점에는 포함되지만, 평점 평균에는 미포함되는 사회와 세계 영역의 2학점 패스·논패스 과목이다.

또 학점 인정 기준은 △사회봉사 이론 △서비스 러닝의 이해 △주민자치의 이해 △안전교육으로 이뤄진 15시간의 이론 교육과 의제 발굴 △현장 답사 △프로젝트 실행 △지역 행사 참여 △홍보 콘텐츠 제작으로 구성된 30시간 이상의 사회 봉사활동 이수다.

다만 사회봉사활동은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한다. 더불어 지사협 봉사는 다양한 봉사 활동처에서 수행한 봉사 시간을 인정해주는 사회봉사2 교과목과 달리 본 교과목 내에서 수행한 활동에만 봉사 시간을 인정한다.

지사협 봉사는 대면 및 현장실습의 형태로 진행되고 수행할 봉사 프로젝트의 내용과 관련 지역 행사 일정에 따라 수업 내용과 시기가 변동될 수도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지사협 봉사는 주어진 활동에 참여하고 정해진 시간을 채우는 방식과 활동이 끝나면 관계가 종료되는 활동이 아니다. 결과보다 참여 자체가 목적인 일반적인 봉사 활동과 달리 프로젝트 디자이너로서 지역사회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하는 경험을 하게 한다는 목적을 가진다.

따라서 강의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정의하며 팀 프로젝트를 설계, 실행하고 주민과 협력 관계를 정립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수업 2주 차에 진행된 정릉1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한 의제 발굴 워크숍을 통해 지역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의 첫 발을 디뎠다. 다양한 전공과 특기를 가진 대학생들이 혼합된 교양선택 교과목의 장점이 워크숍에서 나온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모든 학생이 참여해 진행한 워크숍과 달리 본격적인 팀 구성이 시작되면 학생들은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정릉1동 팀과 글로벌·청년 K-주민자치를 주제로 하는 김음1동 팀으로 나뉜다.

지사협 봉사를 통해 우리대학과 지역 주민들의 협력이 상생으로 이어지고 발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승윤 기자
(organiceggfry@skuniv.ac.kr)

학술정보관, ‘2026 정대건 작가와의 만남’ 개최

지난 9월 15일, 우리대학 유담관 학술세미나실에서 학술정보관이 주최한 ‘2026 정대건 작가와의 만남’ 행사가 개최됐다. 2시간 동안 진행된 행사에서 정대건 작가는 ‘주인공의 자격’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1시간 동안 강연을 진행하고,

나머지 1시간은 질의응답을 통해 학생들과 소통했다. 정 작가는 ‘GV 빌런 고태경’으로 한경신춘문에 당선된 소설가로, ‘아이 더 유’, ‘급류’ 등으로 베스트셀러 작가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정 작가는 래퍼를 꿈꾸던 힙합

소년의 시간, 한국영화아카데미를 수료하고 영화감독의 길을 걷던 청년의 시간, 그리고 소설가로서 거듭난 현재의 시간까지 그가 살아온 족적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어떤 형태로든 창작을 이어간 그의 삶의 궤적에는 방향, 고독, 아픔, 절망이 빼곡했지만 창작자로서의 끈기 또한 엿볼 수 있었다.

이어서 그는 수십 년간 ‘이야기’를 만들어온 창작자로서 이야기 작법과 좋은 이야기가 갖춰야 할 조건 등에 대해 강연을 이어 나갔다. 이야기가 갖춰야 할 요소들, 작품 속 주인공의 자격, 서사를 이어 나갈 때 필요로 하는 장치들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뤘다.

그가 걸어온 굴곡진 삶, 좋은 이야기에 대한 탐구는 곧 그의 작품 세계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그가 열정을 바친 영화계의 경험에서 얻은 소재에 발상의 전환을 가미해 소설로 탄생시킨 ‘GV 빌런 고태경’과 극적이고 처절한 사

랑의 연장선이었던 ‘급류’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이어진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작가의 개인적 경험에 관한 질문부터 슬럼프를 이겨내는 방식, 작가의 대표작 속 문장의 비화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 자신의 어두운 과거 이야기를 먼저 건넨 작가에 화답하듯 학생들도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꺼내며 사람과 사람으로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보냈다. 마지막 순서에 이르러,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작가와의 사인회가 진행됐다.

해당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행사에 대해 칭찬하며 더 많은 작가와의 만남 행사가 열렸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전준혁 기자
(nicejackkyhu@naver.com)



영어전공 학술제 열려…발표와 게임으로 선후배 한자리에

제5대 영어전공 학생회(이하 학생회)가 지난 9월 21일(월) 오후 6시 혜인관 시청각1실에서 ‘영어전공 학술제(English Major Academic Festival & Symposium)’를 열었다. 영어전공 2~4학년 재학생과 26학번 미래융합대학1·2 및 자유전공 학부 신입생 대상으로 진행된 행사였다.

행사는 회장단과 발표자 소개로 시작됐다. 이어 영어전공 박부남·피터 샌달·제이크 프레스톤 교수가 인사말로 학생들을 응원했다.

첫 순서는 반의어 게임(Antonym Matching Game)이었다. 참가자들은 제시된 영어 단어와 뜻이 반대인 단어를 찾아찍었다.

오후 6시 30분부터는 학술 발표가 이어졌다. 3팀 4명의 발표자가 30분 동안 △The Backstage of THE ODYSSEY △Grammys, what do you mean? △Was Odysseus Actually A Good Leader? 라는 주제를 다뤘다.

발표가 끝나자 상황 매칭 게임(Situational Matching Game)이 열

렸다. 주어진 상황에 맞는 영어 표현을 고르는 게임이다.

이후 단체 사진을 찍은 뒤, 학생회가 준비한 맘스터치 핫렛버거로 저녁을 먹으며 잠시 숨을 돌렸다.

마지막 게임은 텔레스트레이션(Telestrations Game)이었다. 제시어를 그림으로 그리면 다음 사람이 그림을 보고 단어를 추측해 적고, 이를 다시 그림으로 옮기는 방식이다. 그림이 손을 거칠 때마다 제시어가 엉뚱하게 바뀌자 객석 곳곳에서 웃음이 터졌다.

학생회는 오후 7시 50분부터 게임 시상과 경품 추첨을 진행하고 오후 8시 10분경 행사를 마쳤다.

[영어전공 학생회 인터뷰]

- 학생회장 이기환(금비 22)
- 부회장 박지윤(금비 21)
- 전공 운영 대표 김민세(미용1 25) 학우

Q. 행사를 준비한 소감을 밝힌다면.
A. 영어전공의 2학기 행사로 학술제라는 뜻깊은 자리를 함께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다양한 게임을 즐기고, 발표자들의 발표를 들으며 즐겁게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영어전공 학술제가 학생들이 함께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행사로 이어지길 바라며, 내년 영어전공 학술제에도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심화평 기자
(marksim@skuniv.ac.kr)



한 눈에 보는 이슈

정치

100일 정기국회 개막
… 부동산·사법개혁·예산안 ‘격돌’

경제

홈플러스, 우리의 추억 속으로 사라질까, 다시 일어설까

사회

제주 실종 신고 허위 종결…경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 대두

문화

AI 앨범 0점 혹평과 침묵의 저항… ‘예술’과 ‘도구’ 사이, 뜨거운 찬반 논쟁

연예

전현무 이어 김민까지… ‘나 혼자 산다’는 왜 자꾸 ‘주작’을 의심받나

스포츠

금메달은 ‘병역 면제권’ 인가… 아시안게임이 다시 불붙인 병역특례 논란

자세히 보는 이슈

100일 정기국회 개막... 부동산·사법개혁·예산안 ‘격돌’



▲ 출처 : 뉴스1

지난 9월 1일 정기국회가 막을 올리면서 여야의 100일간 입법·예산 심사가 시작됐다. 이번 정기국회는 12월 9일까지 이어진다. 부동산·사법개혁 관련 법안과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과제 입법과 예산안 처리를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과 예산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는 태도다.

정기국회 초반부터 부동산 관련 법안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개

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부동산 감독원 설치법이 관련 법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을 두고 여야의 견해 차이가 남아 있다. 9월 15일 여야가 민생법안 32건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용적률 상향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법개혁 관련 법안도 정기국회에서 다뤄진다.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후속 입법과 법원조직법 개정 등이 논의되고

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를, 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맡도록 하는 내용이다.

예산안 심사에서는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이 핵심이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12.8% 늘어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년 지원과 미래 성장 동력, 지방 발전, 교육·인재 분야 등에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에 43조 3,000억 원을 편성하고, 미래 대응 기금을 통해 45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청년 지원 예산에는 대학생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한다. 2027년 청년 월세 지원은 지원 대상을 넓히는 방향으로 편성됐다. 지원 나이는 기존 19~34세 중심에서 만 18~37세로 확대되고, 1인 가구의 소득 기준도 기존 중위소득 100% 수준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청년 취업 지원은 일자리 진입 준비부터 경험·경력 형성, 취업과 근속까지 이어지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 정책과 공공기관의 업무를 살펴볼 계획이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와 지적은 이후 정책 개선이나 법안·예산 검토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다.

인사청문회도 정기국회의 주요 일정이다. 지난 8월 30일 6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뒤 국회 검증이 이어지고 있다. 9월 15일에는 이영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이어, 16일에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됐다.

연승은 수습기자 (sehnsk@skuniv.ac.kr)

제주 실종 신고 허위 종결... 경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 대두



▲ 출처 : 연합뉴스

지난 5월 12일 오후, 제주도에 거주하던 장미란 씨(37/여)의 연락이 두절됐다. 이후 5월 15일, 지인이 실종 신고를 접수했고 수색이 이뤄졌으나 담당 경찰관이 허위로 사건을 종결해 버리는 탓에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철수했다. 담당 경찰관이었던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 실종수사팀 소속 부 경장은 “장 씨와 연락이 닿았고, 본인이 위치를 알리지 말아 달라고 했다”며 상사와 신고자에게 허위로 통보하고 사건을 종결시켰다. 그 후 ‘실종자 프로파일링 관리 목록’ 시스템에서 장 씨 사건을 삭제하며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사유를 기재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 조치에 관해 경찰 관계자 중 아무도 파악하지 못했다.

그로부터 2개월 후 7월 17일, 장 씨의 가족들은 다시 한번 실종 신고를 접수했으나 경찰은 부 경장의 허위 보고를 이유로 거절했다. 7월 19일, 서울에서의 신고를 통해 실

종 사건에 대한 수색이 재개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다 큰 성인이 가출한 것 아닌가”라며 사건을 방기했고, 제주서부경찰서는 종전의 실종 사건이 허위로 종결된 것을 인지했음에도 약 3주간의 시간을 허비했다. 결국 8월 18일, 이 사건에 관한 언론 보도가 이뤄진 다 음에야 본격적인 실종자 수색이 이뤄졌다. 하지만 피해자의 동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CCTV는 이미 저장 기한이 만료돼 소실된 상태였다. 140여 명의 인력과 헬기, 드론, 경비정 등이 동원된 결과, 8월 24일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은 장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에서 불과 도보 10분 거리에 있었다.

이와 같이 개인이 실종 사건을 임의로 판단해 허위로 종결하는 기관 행위와 근무 태만에 큰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이러 한 행태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었

다. 지난 7월 2일, 부 경장은 60대 남성에 관한 실종 사건에 대해 장 씨 사건과 똑같은 수법으로 허위 종결했다. 이후 장 씨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실종자 가족은 재신고했고, 재신고 하루 만에 백골 상태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부 경장이 임의로 허위 종결한 실종 사건을 추적했고, 그 결과 실종 위험이 큰 아동, 장애인, 치매 환자 등의 기록까지 조작·삭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확 인한 부정적 처리 사례는 25건으로, 경찰은 추가적인 사례가 얼마든지 더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지속적인 수사 중이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실종 사건을 방기하고 허위로 종결시키는 등 무책임한 근무 태만, 이러한 근무 태만이 가능 한 허술한 수사 구조, 언론 보도가 될 때까지 이 사실을 완전히 파악 하고 제지하지 못한 경찰 행정 시

스템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이에 경찰 측은 8월 28일부터 10일간 회식을 금지하고 음주를 자제하는 공직 기강 특별 경보를 발령했다. 경찰청 체제 개편 이후 처음 있는 특별 경보 발령이었다. 하지만 이마 저도 사건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보여주기식’ 발령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결국 경보 기간이었던 9월 3일, 서울 용산경찰서 관할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음주 후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체포되면서 경찰의 행정적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경찰에 대한 근무 태만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경찰은 잇따른 경찰 내 논란을 의식해 전국적으로 비위 경보를 발령하고 강도 높은 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뒤 5월, 세간에 큰 충격을 줬던 ‘장윤기 사건’에서도 경찰의 조직적 증거인멸 행태가 적발돼 큰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찰청은 9월 9일, 업무 전반의 개선을 위해 ‘경찰 개혁단’을 출범했다.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경찰 쇄신을 도모할 예정이다. 하지만 2년 가까이 경찰정장이 공석인 실정에, 우후죽순 생기는 개혁 기구들이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10월 2일, 검찰과 보원수사관의 패지로 경찰은 수사 전권을 맡게 됐다. 경찰의 영향력이 비대해진 만큼, 경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한 상황이다. 경찰은 수사에 대한 시스템적 결함을 수정하고 전체적인 기강을 확립하여, 국민의 ‘경찰 불신’을 해결하고 대한민국 치안 유지를 위해 정진해야 할 것이다.

전준혁 기자 (nicejackkyhu@naver.com)

홈플러스, 우리의 추억 속으로 사라질까, 다시 일어설까

지난 9월 2일 서울화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 계획안이 가결됐다. 이어 재판부의 인가까지 받으며 큰 고비를 넘겼다. 회생 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75%, 회생채권자조 66.7%, 주주조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표결 결과 회생담보권자조의 의결권 100%, 회생채권자조에서 75.90%, 주주 조에서 100%가 동의했다. 회생 계획안대로 채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정식으로 허용했다는 것이다.

홈플러스는 작년 3월 4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홈플러스 측은 “신용 등급의 하락과 이에 따라 향후 단기자금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3년 연속 1천억~2천억 원대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총차입금은 5조 4,620억 원, 부채비율은 1,408%에 달했다. 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전인 2월 28일 신용 평가사와 한국기업평가는 영업 실적 부진과 과중한 재무 부담, 향후 실적 및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홈플러스의 신용 등급을 내렸다.

하지만 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에도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다. 회생절차 신청 당시에는 법원에서 개시를 인가했지만, 이후 제출한 회생 계획을 보고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제출한 계획을 보고 법원에서는 자금 조달 계획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주요 채권단인 메리츠에 2,000억 원의 긴급 운영자금(IEF)을 얻어 영업을 재개한 후 4차 수정 계획을 제출했다. 법원은 수정 계획을 확인하고 올해 7월 21일 폐지



▲ 출처 : 메트로서울

결정을 취소해 회생절차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다시 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는 구체적인 회생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안의 핵심은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할 미지급 납품 대금인상거래 채권 5,032억 원의 변제 방안이다.

홈플러스는 공익채권을 3년 안에 100% 변제하고,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일반 회생채권은 2032년부터 2037년까지 분할 상환할 것을 제안했다. 공익채권은 2028년 2월까지 0.5%, 2029년 2월까지 20.3%, 2030년 2월까지 나머지 79.2%를 차례대로 갚는 장기 분할 상환 방식이다. 또, 홈플러스는 폐점 점포 가운데 자가 점포 19개를 2028년 2월까지 매각해 메리츠가 보유한 1조 3천억 원 규모의 앞순위 담보권 신탁 채권을 우선 상환하겠다고 제안했다.

회생계획안까지 인가됐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 지난 5월 이후 홈플러스 운영 점포는 104개에서 현재 67개로 줄었다. 휴업과 재개장이 반복되면서

소비자들이 인근 점포의 영업 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마트 노조는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점포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아, 관련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홈플러스 노사는 최근 영업 상황과 상품 공급, 인력 운영 등 회생 계획 이행을 위한 정상화 방안의 논의를 위해 9월 15일 회생 계획 인가 이후 처음으로 공식 대면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15일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와 홈플러스 일반 노조를 각각 만나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9월 2일 서울 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한 이후 첫 노사 간담회다.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는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처음 마련된 자라인 만큼 현재 매출 상황과 회사의 영업 정상화 계획, 노사가 함께 추진할 과제 등을 확인했다.

박희린 수습기자 (pphhrr0904@naver.com)

AI 앨범 0점 혹평과 침묵의 저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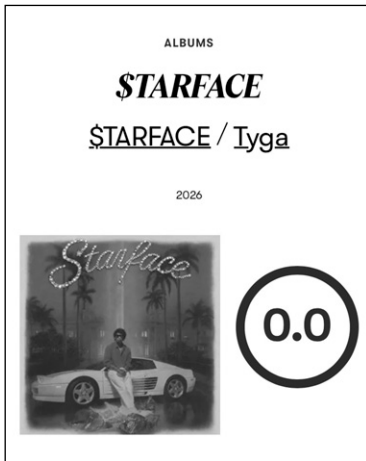
‘예술’과 ‘도구’ 사이, 뜨거운 찬반 논쟁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예술 영역에 깊숙이 침투하면서 문화예술계 전반이 거센 찬반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 영화계에서는 2023년 AI 배우·대본 도입을 둘러싼 할리우드 작가·배우들의 대규모 파업이 일어났고, 디자인 분야 역시 무단 이미지 학습 및 일자리 대체 문제로 갈등이 번지고 있다.

이러한 진통은 최근 음악계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지난 8월, 미국 유명 음악 전문 매체 피치포크(Pitchfork)는 래퍼 타이거(Tyga)의 AI 활용 새 앨범 ‘\$TARFACE’에 평점 10점 만점에 0.0점이라는 혹평을 내렸다. 피치포크는 “창작을 더 나쁜 곳으로 만들었다”며 창작자의 고민 없이 기술로 찍어낸 음악을 비판했다.

창작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움직임도 거세다. 케이트 부시, 한스 짐머 등 1,000명이 넘는 세계적인 음악가들은 ‘Is This What We Want?’라는 제목의 침묵 앨범을 발매했다. 팀 빈 스튜디오의 정적만을 담아낸 이 앨범은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무단 활용을 비판하며, 무분별한 기술 도입이 창작자의 목소리를 사라지게 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이처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술을 다루는 예술가의 의도와 경향이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우리대학 실용음악학부 정동환 교수(멜로망스 피아니스트, KBS〈더 시즌즈〉음악감독)는 AI 역시 과



▲ 출처 : 피치포크

거의 신사이사저나 컴퓨터 소프트웨어처럼 인간의 생각과 상상을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도구’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정 교수는 예술가들이 AI를 “하나의 새로운 악기나 악보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한다. “같은 피아노를 연주하고 같은 악보를 보더라도 누가 연주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음악이 담겨나”고 말한다. “AI가 무엇을 만들어주느냐가 아니라 예술가가 그것을 통해 무엇을 표현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있다”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결국 AI와 인간 음악가의 본질적 차이는 ‘경험을 받아들이는 깊이’에 있다”고 전했다.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할 수는 있지만, 인간이 살아가며 느끼는 사랑, 상실, 실패 등 수많은 감정의 교집합과 “왜 이 음악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 이유는 동일하게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기술적 차이가 줄어들수록 음악가에게는 자신이 무엇을 느껴 어떻게 음악에 담아낼 것인가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AI 학습 과정에서 불가피는 모방과 창작의 경계에 대해서도 명확한 시각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깊이 있는 학습과 모방을 통해 새로운 창작물이 탄생하기도 한다”면서도 “분명히 경계해야 할 것은 기존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표절’이라고 단언했다. AI 시대에도 결국 무엇을 학습했는지보다 그것을 바탕으로 창작자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자신만의 언어로 완성해내느냐가 창작을 구분 짓는 기준이라는 뜻이다.

결국 논쟁의 핵심은 기술 자체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다. 정 교수는 “기존 창작물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저작권에 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기반이 선행돼야 AI와 예술가가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영화, 디자인, 음악 등 장르를 불문하고 AI가 예술계에 안겨준 파고는 동일하다. 기술을 인간의 표현을 확장할 유용한 도구로 품으면서도, 창작자 고유의 삶과 감성, 정당한 권리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한 시점이다.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발길이 닿지 않던 곳까지! 서경대 내외부 밀착 취재



강의실과 식당, 카페만 오가는 학교생활. 여러분은 우리대학의 시설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가? 수업을 듣기 위해 강의실에 가고, 식사를 위해 수유리 우동이나 교내 편의점 등을 이용한다. 또, 휴식이나 과제를 위해 가는 카페 sp, 로열 등 주로 이용하는 시설들은 대부분이 알고 익숙하게 사용한다. 그러나 이외 시설에는 무관심하거나 잘 알지 못해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교내 시설은 얼마나 많을까? 우리대학에는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들 이외에도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다. 하지만 이

ونه 보고 싶어도 정확한 위치나 이용 방법을 몰라 발길을 돌리거나, 복잡한 동선 탓에 선뜻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매일 같은 시간표로 움직이다 보면 평소 다니던 길을 벗어나지 않아 새로운 시설을 찾아볼 일도 많지 않다. 이에 본지는 학생들이 교내 시설을 얼마나 알고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본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 3주간 교내 시설 및 공간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가장 인지도가 높은 시설은 서경스포렉스(95.8%)였으며, 신한은행(97.9%)과 우체국(89.6%)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더 많이 알려

졌으면 하는 시설'로는 미소식당(27.1%)에 이어 더뷰티샵 네일샵(25%)과 뷰티샵 블랙 미용실(22.9%)이 높은 표를 받았다. 또한 '나만 알고 있는 공간'으로는 서경 스튜디오와 복악관 7층에서 문예관으로 이어지는 계단 등이 언급됐다. 이처럼 학생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공간은 곳곳에 있다. 그중 학생들의 관심은 높으나 정보가 부족했던 잘 모르는 시설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지 기자들이 직접 찾아가봤다.

학교에서 즐기는 헬스와 목욕탕? 유담관 3층 ‘서경스포렉스’

본교 시설을 떠올릴 때 빼놓지 않고 언급되는 곳 중 하나는 단연 서경스포렉스다. 특히 축제나 밤샘 과제 등으로 귀가하지 못하는 날이면, 자연스럽게 스포렉스의 목욕탕이 구제 주처럼 떠오르곤 한다. 스포렉스는 유담관 3층에 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일요일은 휴관한다. 프로그램은 △골프 △헬스 △스파스널 트레이닝 △스쿼시로 나뉜다.



이 외의 정보는 스포렉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자가 유담관 3층에 방문해 보니 신한은행 원편에 있었다. 스포렉스 입구에 들어서자 은은한 목욕탕 냄새가 났고, 오른쪽에는 사물함이 늘어져 있었다. 기자가 방문했을 당시 학우들보다는 주민들이 여럿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기자는 헬스에 대해 잘 모르는 터라, 스포렉스를 직접 이용해 본 학우들의 후기를 들어봤다.

박상현(전컴 23)_트레이너가 상주하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해 주십니다. 목욕탕은 헬스를 등록하면 탕과 찜질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급한 사정이 생겨 일찍 나오면 다시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김소희(소웨 22)_ ‘스쿼시’와 ‘발란스 무브

먼트’ 수업 때 이용했습니다. 헬스장에 붙어 있는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넓고 쾌적했습니다. 주민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익명의 학우_ 요즘 운동 기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구가 두 대씩 있어서 하고 싶을 때 기다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엔 학생 가격이 6만 원이었는데 4만 원으로 인하돼서 좋습니다. 운동 후에는 온탕에 들어가 몸을 녹이거나 냉탕에 들어가서 근육의 긴장감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스포츠 헬스 회원을 끊을 경우 ‘짐어스’라는 앱을 통해 회원권, 출석부, 휴회 신청 등의 개인정보를 연동할 수 있다.

교내에서 피부관리부터 머리, 메이크업까지? 캠퍼스 뷰티 복지 200% 활용하기

앞선 설문조사 결과처럼 교내 뷰티 시설은 학우들이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응답한 대표적인 공간이다.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정작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몰라 선뜻 방문하지 못했던 학우들이 많았다.

더뷰티샵 에스테틱 앤 스파_ 청운관 L층에 위치한 이곳은 15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전통 있는 공간으로, 전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10시부터 20시까지, 토요일은 10시부터 16시까지 문을 열어 공휴일과 일요일은 휴무다. 교직원과 재학생에게는 5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학과 실습 공간으로도 활용돼 수강생들이 실제 고객 응대와 조영·기물 배치 등을 배우는 곳이기도 하며, 주변 아파트 주민 등 외부인의 방문도 활발하다. 가장 정보가 적었던 만큼 기자가 직접 시그니처 얼굴관리를 받아봤다. 시술 과정에 대한 친절한 설명과 함께 궁금한 점을 부담 없이 질문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였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관리가 진행된 나머지 기자는 깜빡 잠에 들기도 했다. 얼굴 관리 코스임에도 가슴

과 다리 마사지까지 포함되어 만족도가 높았고, 중간중간 마사지 압을 확인해 알맞은 세기로 세심하게 케어해 주었다. 기본 미니 관리가 정상이 3만 원(화원가 2만 원), 스페셜 관리가 8만 원(화원가 6만 원) 수준으로 형성돼 있어 학생 할인 적용 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얼굴 관리 외에도 전신, 등, 부분, 압출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



더뷰티샵 블랙_ 헤어 스타일이 고인된 팬 유담관 9층에 위치한 헤어샵 ‘더뷰티샵 블랙’에 가보자. 버스정류장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며, 학우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청운관 L층에 2호점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일요일은 휴무이며 평일 마지막 커트는 19시 10분, 토요일은 17시 10분까지다. 유담관 9층 본점 기준 디자인이 남성 커트 2만 원, 여성 커트 2만 5,000원이며, 다온팩을 포함한 남성 커트는 3만 5,000원, 기본 전체 염색은 4만 4,000원부터 시작해 약 5만 원 선에 이용할 수 있다. 청운관 L층 2호점의 경우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모발 길이에 따른 기장 추

가 요금에 발생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학우들을 위해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 제도도 마련돼 있다.



서경대 메이크업 스튜디오_ 메이크업과 헤어 세팅을 받을 수 있는 메이크업 스튜디오는 유담관 5층 중앙에 있으며, 네이버 예약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물결 웨이브, 번 스타일, 업스타일 등의 헤어 세팅부터 데일리·이벤트·아이돌·스페셜 메이크업까지 맞춤 스타일링을 받을 수 있다. 헤어 세팅은 물결 웨이브 2만 5,000원, 포니테일/반묶음 3만 원 등 5만 원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구성돼 있다. 남성 메이크업은 4만 원, 데일리 메이크업은 5만 원에 이용 가능하며, 추가 요금을 내면 얼리/애프터 시간대 예약도 가능하다. 퍼스널 컬러 진단 및 메이크업 클래스를 수강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같은 공간에서 운영되는 네일샵은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문의 및 예약을 진행한다. 풀컬러 기준 정상이 3만 5,000원이지만 재학생은 2만 5,000원에 이용이 가능하며, 연장과 컬러를 포함한 코스는 정상이 8만 원, 첫 방문 할인이 6만 5,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캠퍼스 밖 서경대의 흔적을 찾아서

서경대학빌딩_ 강남구 논현로에 있는 이곳은 유담관과 문예관이 떠오르는 디자인과 함께 ‘서경대학교’ 간판이 눈에 띄었다. 내부엔 영화관을 비롯해 편의점, 약국, 성형외과 등이 입점해 있었다. 본교와 같은 디자인인 로비 안내판에는 ‘SKU BLDG’라는 표기와 함께 우리대학 로고가 자리하고 있었다. 현장 보안요원에게 건물과 본교의 관계를 물어보니, 건물이 우리대학 법인 소유이며 건너편 빌딩도 마찬가지로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안내해 준 대로 건물 뒤쪽으로 가보니 한 빌딩이 눈에 들어왔다. 그곳 역시 영화관이 있었고 전체적인 인테리어도 비슷했다. 해당 건물 역시 병원과 상업 시설들이 들어선 상가 빌딩이었다.



NOL 서경스퀘어_ 2019년 2월 개관식이 열렸던 이곳의 기존 명칭은 ‘서경대학교 공



연예술센터’였다. 하지만 2024년 아놀자와 인터파크의 합병 법인인 NOL과 본교가 네이밍 스폰서십을 체결해 ‘NOL 서경스퀘어’로 명칭이 변경됐다. 로비에 들어가 보니 이곳이 서경대 해화동 캠퍼스임을 알리는 안내판이 있었다. 건물은 문화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었다. 공연장은 스크 1관 440석, 스크 2관 264석 규모로 구성돼 있다. 방문 당시 뮤지컬 상영 시간 전이라 매표소가 닫혀 있었고 1층 외의 공간은 출입이 통제돼 있었다. 우연히 본교 이름이 적힌 유니폼을 입은 미화원분들이 퇴근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교와 연계돼 관리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1층 상가에는 ‘NOL 라운지 대학로점’ 간판이 붙어 있었으나 공실 상태였다. 이에 대해 본교 측에 문의한 결과, 현재는 ‘NOL 써이더 대학로’로 옮겨진 상황이고, 본교와의 계약은 11월 중순까지라고 전했다.

서경청소년수련원(서경트레이닝센터)_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는 이곳은 기업연수 및 워크숍, 대학생 진로 교육, 청소년 수련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다. 인터넷 상에서는 주로 골프연습장 이용 후기들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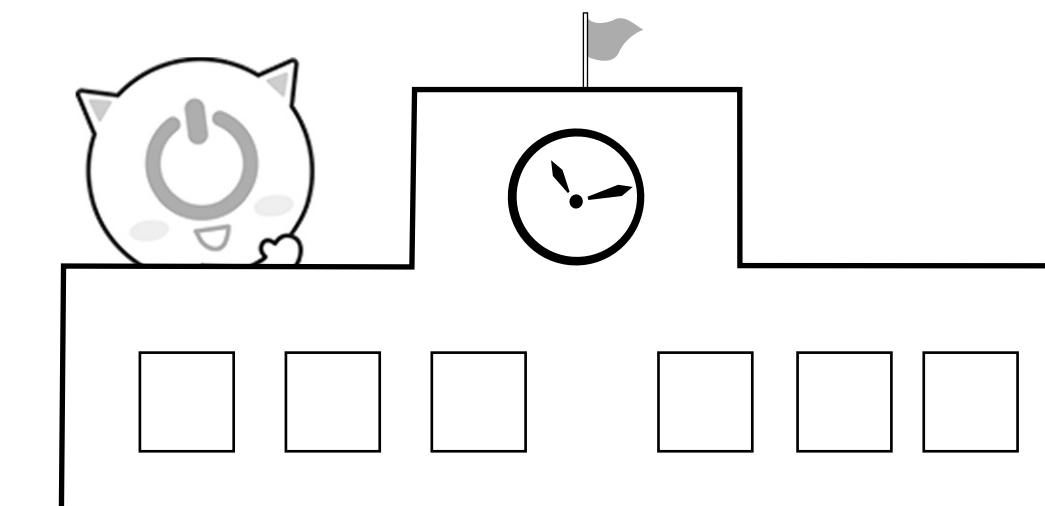
학교 공지 사항을 확인해 보니, 2017년까지만 해도 이곳은 재학생들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 코스였다. 1학년은 CREOS camp, 2학년은 SKON Camp, 3학년은 Dream Camp로 이어지는 1박 2일 캠프가 졸업 인증 필수 프로그램이었다.

이후 사라진 이 캠프는, 무전공 입학 제도가 시행된 작년부터 ‘Major Design Camp’라는 이름으로 부활했다. 미래융합학과와 자유전공학부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이 캠프에 참가했던 학우의 후기를 들어봤다.

이요한 (미용2, 25)_ 대강당과 세미나실이 유담관 강의실과 똑같이 익숙했습니다. 다만 산속이라 편의점에 갈 수 없었던 게 불편했습니다.



▲ 출처: 서경청소년수련원 공식 블로그



‘우리대학에서 이거 못하나?’ 우리가 몰랐던 다양한 시설들

본교에는 교내 카페나 식당, 편의점처럼 익숙한 곳 외에도 “학교 안에서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나?” 싶은 유용한 시설과, 쉽게 찾기 힘든 숨은 공간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택배를 보내거나 은행 업무를 봐야 할 때 굳이 시간을 내서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이 두 시설은 유담관 3층에 마주보고 있어 교내에서 우편·택배 발송부터 은행 업무, 학생증 발급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찾아가는 방법도 어렵지 않다. 카페 로열을 등지고 유담관에 들어오면 정면에서 왼쪽에 비상계단 입구가 있다. 입구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내려가면 바로 눈에 보인다. 신한은행은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고 평일 9시부터 1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피해서 방문하는 걸 추천한다. 우체국 또한 평일만 영업하고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한다. 한편, 존재는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몰랐던 공간도 있다. 바로 미소식당이다. 학교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편의 시설임에도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미소식당은 유담관 3층 서경스포렉스에 위치해 있다고 나와있지만 생각보다 찾아가는 방법이 복잡하다. 먼저 서경스포렉스 입구로 들어간 뒤 내부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에서 내려야 한다. 이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보이는 주차장 벽면의 골프장용 엘리베이터로 갈아탄 후 3층에 내려면 식당에 도착할 수 있다. 메뉴는 가정식 백반 당일 메뉴로 이뤄져 있다. 정규 영업시간은 10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다. 현재는 농사절로 인해 11월까지 금요일에만 15시까지 단축 운영하기도 하므로 방문 전 미리 운영 시간을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음악부터 공연까지, 창작이 이뤄지는 공간

우리대학에는 강의실이나 학생식당처럼 학생들이 자주 찾는 공간 외에도 전공 수업과 창작 활동에 활용되는 다양한 시설이 있다. 그러나 이름을 들어봤더라도 정확한 위치나 이용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 서경레코딩스튜디오와 크리에이티브센터가 대표적이다. 두 공간을 직접 살펴보면 어떤 시설이 마련돼 있고 학생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봤다. 기존 설문에서도 두 공간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도는 높지 않았다. 서경레코딩스튜디오를 알고 있거나 이용해 본 학우는 없었으며, 위치와 이용 방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도 없었다. 크리에이티브센터를 알고 있다고 답한 학우는 9명(18.8%)이었고, 위치와 이용 방법까지 알고 있다는 응답은 3명(6.3%)에 그쳤다. 학우들은 교내 시설의 위치와 이용 방법뿐 아니라 운영 시간과 가격 등에 대한 정보도 알고 싶다는 의견을 보였다.

서경레코딩스튜디오는 본교 본관 8층에 위치한 녹음 시설이다. S-HALL과 Studio A·B, 피아노룸·드럼룸·보컬룸으로 구성돼 연주와 녹음, 편집·믹싱 등에 활용된다. S-HALL은 오케스트라와 스트링, 합창 등 대규모 연주에 맞춰 설계됐으며, 피아노룸·드럼룸·보컬룸에서는 악기와 보컬을 녹음할 수 있다. 해당 공간은 교내 실용음악학부 학생들의 실기수업을 중심으로 활용되며, 프로뮤지션의 녹음이 진행될 때 학생들이 현장을 참관하기도 하곤 마련된다. 공간별 대여료는 S-HALL 45만 원, 피아노룸·드럼룸·보컬룸 각각 20만 원이며 엔지니어비는 별도다. 이용 대상과 대여 절차, 이용 가능한 시간 등은 공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 전 관련 부서에 확인해야 한다.

크리에이티브센터는 공연예술 창작과 실습이 이뤄지는 공연실습소다. 무대기술과 무대영상 제작 등을 위한 공간이 마련돼 있으며, 패션쇼·뮤지컬·연극 등 공연예술 활동에 필요한 작업이 이뤄진다. 기자가 직접 방문했을 때는 여러 대의 재봉기와 작업대가 놓인 공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상 제작에 필요한 장비와 재료가 갖춰져 있어 공연에 사용될 결과물을 만드는 작업 공간이라는 점이 눈에 띄었다. 본지 기자가 소속된 교내 뮤지컬 동아리 UDream에서도 정기공연을 준비하며 크리에이티브센터를 이용했다. 당시 공연에 필요한 대도구를 마련하기 위해 센터 지하 1층에 보관된 물품을 확인하고, 사용될 대도구에 라벨을 붙여 반출했다. 이를 통해 크리에이티브센터가 공연 관련 수업뿐 아니라 학생들의 실제 공연 제작에도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크리에이티브센터의 모든 공간과 장비를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이용 전에 담당자에게 이용 가능 여부와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카페에 들어서면 조용히 책을 읽거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노트북을 펼쳐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강의실 안에서도 각자의 모습은 조금씩 다르다. 좋아하는 캐릭터가 그려진 노트와 스티커로 책상을 꾸미거나, 이어폰을 끼고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기도 한다. SNS 피드에는 맛집과 카페를 찾아다니 기록부터 운동, 전시, 공연을 즐기는 모습까지 다

양한 일상이 담긴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무엇을 보고, 듣고, 즐기는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취향은 이제 단순히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넘어 자신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식이 됐다. 비슷한 유행을 따르면서도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고,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즐거움을 찾기도 한다. 같은 것을 보더라도 느끼는 매력은 사람마다 다르다. 정해진 답을 따르기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직접 고르고 즐기는 과정에서 취향은 곧 하나의 개성이 된다. 취향은 공간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조용히 혼자 있고 싶은 날에는 한적한 카페를 찾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 날에는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찾는다. 몸을 움직이고 싶을 때는 운동장, 새로운 경험을 원할 때는 공부방이나 원데이 클래스에 발걸음을 옮긴다. 좋아하는 것에

따라 머무는 공간과 보내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달라진다.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취향을 즐기는 대학생들의 모습을 따라가 봤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고요함, 사람들과 취향을 나누는 다채로움, 몸을 움직이며 에너지를 얻는 활기참, 새로운 경험을 통해 취향의 범위를 넓히는 새로움까지. 서로 다른 취향이 만드는 각자의 즐거움을 만나본다.

문밖에서 찾은 ‘고요’



과거에는 한 가지 취향이 하나의 시대를 대표했다. 전교생이 같은 패딩을 입던 시절, 하얀색 줄이 세 개 박힌 주리닝 바지가 유행하던 시절이 그랬다. 지금도 여전히 유행은 존재한다. 하지만 모두가 같

은 것을 좇지는 않는다. 저마다 좋아하는 것이 달라졌고, 그 취향을 드러내는 방식도 다양하다. 기자 역시 다양한 취향과 취미를 갖고 있다. 이들은 시간의 흐름이나 상황에 따라 바뀌기도 한다. 그러다 나 자신을 들여다보며 알게 된 변치 않는 취향이 하나 있다. 바로 삶에서 ‘고요함’의 추구다. 기자는 청각이 예민한 탓에 외부 소음이나 타인이 만들어내는 잡음에 자주 불편을 느꼈다. 내향적인 성향까지 더해져 쉬는 날이면 방 안에 들어가 이어폰을 끼고 나오지 않는 날이 잦았다. 조용한 방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최고의 휴식이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새로운 취미가 생겼다. 시작은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서 본 연예인의 ‘사우나 예찬’이었다. 스트레스받거나 고민이 많아지면 사우나에 간다는 그는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불가마에서 땀을 빼면 잠념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정말 그럴까. 호기심에서 시작한 사우나 탐험은

어느새 기자의 새로운 취향이자 취미가 됐다. 인생 처음으로 찜질방을 찾은 날은 공교롭게도 크리스마스였다. 대형 쇼핑몰 안에 자리한 찜질방은 사람들로 인산인해였다. 평소라면 인파에 질색하며 자리를 피했겠지만, 이날은 달랐다. 추운 겨울날 뜨끈한 열기와 은은한 쑥 향이 감도는 찜솥기마안이 편안했다. 둥근 공간에 누워 눈을 감고 있으니 명상의 일부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찜솥 방과 편백 방, 불가마를 오가며 몸을 데우는 동안 자연스럽게 휴대전화의 네모난 화면과도 멀어졌다. 소곤거리는 소리만 들리는 공간에서 몸의 긴장을 풀니 어느새 땀이 맺혔다. 복잡했던 생각도 멎었다. 최근에는 보다 개인적인 경험을 위해 쑥 효소 찜질 전문점을 찾았다. 1인 찜질실에는 쑥과 효소를 발효한 찜질 재료가 담긴 나무 욕조가 놓여 있었다. 그 속에 몸을 묻고 20분간 누워 있는 것이 찜질의 전부였다. 흠뻑 땀 나며 쑥이 한 움큼씩 몸 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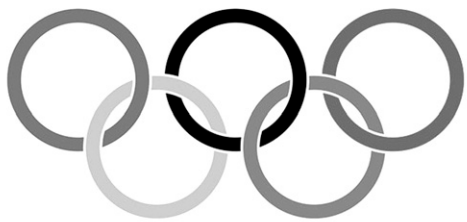
쌓이는 순간에는 문득 관 속에 누워 죽음을 맞은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죽음의 감각은 곧 남은 생에 대한 의지가 됐다. 고요한 공간 속 잔잔한 음악과 온몸을 감싸는 쑥의 목작한 압력, 뜨끈한 열기가 삶에 대한 성찰과 다짐들을 더욱 선명하게 했다. 찜질이 끝난 뒤 몸과 마음에는 온기가 남아 오랫동안 가지지 않았다. 기자와 같은 취향을 가진 이들은 적지 않다. 지난 5월 연합뉴스는 서울의 한 사우나 이용객 가운데 20~30대가 절반가량을 차지한다고 보도했다. SNS에서는 사우나를 즐기는 이른바 ‘사우너’들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다. ‘고요함’을 누리기 위해 쑥 찜질에 있을 필요는 없다. 대문 밖에서 찾는 나만의 고요함과 내면의 평화. 그 공간이 때론 대중목욕탕과 찜질방이 될 수도 있고, 1인용 스파가 될 수도 있다. 고요라는 같은 취향 속에서도 그곳에 닿는 방법은 저마다 달라진다.

모든 게 제자리일 때 필요한 건, ‘새로움’ 한 스펀



취향에도 종목이 있다면 본인은 늘 ‘익숙함’ 부문 국가대표였다. 같은 카페에서 같은 커피를 마시고 같은 동네에서 같은 메뉴를 고르는 사람. 안전하고 편하지만, 어느 날 문득 취향이 몇 번째 제자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같은 곳, 같은 메뉴만 반복하면 고를 수 있는 선택지도 늘지 않는다. 안전한 선택이 쌓일수록 취향은 익숙함에 갇힌다. 취향을 움직이려면 경험의 범위부터 넓혀야 한다. 필요한 건 새로움이었다. 혼자 시작하기엔 부담이 커 고등학교 친구 세 명과 함께하기로 했다. 이번만큼은 늘 하던 술자리 말고 뭔가 해보자는 의견이 모였고 베이킹을 선택했다. 결과물을 먹을 수 있으니 실패해도 덜 억울하고 다 같이 처음이라면 서툴러도 부끄럽지 않기 때문이다. 네 명 모두에게 낯선 시도인 만큼, 완성된 결과물보다 처음 해본다는 사실에 의미를 두기로 했다. 찾아간 곳은 마포구 창천동의 베이킹 공방 ‘올데

이 베이킹’. 신창한 클래스는 한 시간짜리 휘낭시에 만들기로, 수업은 시범 없이 영상을 보며 따라하는 방식이었다. 화면 설명에 맞춰 계량하고 반죽해 틀에 채웠고, 선생님은 테이블을 돌며 도왔다. 영상은 속도에 맞춰 멈추면 되니 누구 하나 뒤처질까 봐 눈치 볼 일이 없었다. 화면을 멈추고 “이 정도 맞나?” 하며 서로의 반죽을 들여다봤다. 한 명이 해매면 옆 친구가 봐주고 그 친구도 모르면 빗이 머리를 맞대고 영상을 다시 돌려봤다. 눈에 띄는 건 꾸미는 단계였다. 같은 영상을 보고 같은 반죽을 만들었지만, 마무리 단계에서 취향이 그대로 드러났다. 한 친구는 화려하게 채웠고 다른 친구는 담백한 쪽을 택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에게서도 처음 보는 취향이 나온 것이다. 취향은 대화로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무언가를 해볼 때 드러난다. 구워낸 휘낭시에의 모양은 빼빼돌처럼 제각각이었다. 시중에서 파는 디저트보다 완성도는 떨어졌지만, 직접 고르고 만든 만큼 세상에 하나뿐인 결과물이었다. 새로운 경험의 좋은 점은 잘하지 못해도 된다는 것이다. 익숙한 일은 결과가 예상되지만, 새로운 일은 끝날 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불확실함이 부담에서 재미로 바뀌는 순간, 새로운 취향과 취미가 시작된다.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경향은 소비 트렌드에서도 확인된다.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의 『트렌드 코리아 2026』은 2026년 10대 키워드 중 하나로 ‘팩셀라이프’를 꼽았다. 작고 다양한 경험을 여러 개 동시에 즐기는 소비 방식을 뜻한다. 한 시간의 원데이 클래스처럼 짧고 가볍게 낯선 취미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경험이 이 흐름과 맞닿아 있다. 취향의 지도를 넓히는 데 거창한 도전은 필요 없다. 평소 가지 않던 곳에서 해보지 않은 일을 한 번 해보는 것, 새로움 한 스펀이면 충분하다. 낯선 시도 하나가 취향의 다음 장을 연다.



취향 아카이브:

서로 다른 일상의 즐거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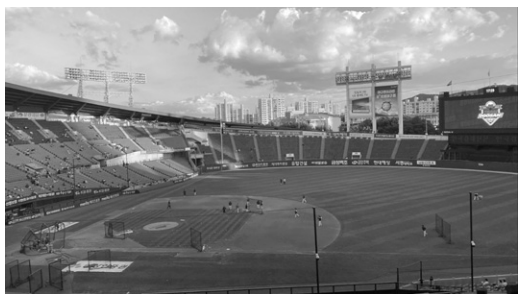
취향을 나누며 더해지는 ‘다채로움’



취향은 혼자보다 함께할 때 더욱 다채로워진다. 좋아하는 책과 음악부터 즐겨 찾는 장소와 여가까지 사람마다 취향은 제각각이다. 서로 다른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의 공간에도 여러 가지 색이 생긴다. 각자의 취향을 공유하고 함께 즐기는 과정에서 새로운 재미가 만들어지고, 혼자였다면 알지 못했을 또 다른 취향을 발견하기도 한다. 이러한 즐거움을 경험하고자 기자는 친구들과 독서 모임을 만들었다. 독서 모임의 방법은 먼저 각자 원하는 책을 읽고, 감평 깊은 부분들을 형광펜이나 책갈피 등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이후 정해진 장소에 모여 서로의 책을 교환하고 짧은 감상평을 남긴다. 줄거리와 인상 깊었던 장면을 공유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을 꺼내 토론한다. 같은 책을 읽더라도 어떤 부분에 주목했는지, 등장인물과 사건을 어떻게 바라봤는지에 따라 감상이 달라진다. 혼자 책을 읽을 때는 하나의 감상으로 끝났던 이야기가 친구들과 함께하면서 여러 관점으로 확장되

는 것이다. 독서 모임에서 장소를 정하는 기준도 특별하지 않다. 책을 읽은 뒤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모임 장소가 될 수 있다. 조용한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공원에 돛자리를 펴고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 공간에 따라 모임의 분위기도 달라진다. 책에 집중하고 싶을 때는 조용한 장소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는 야외 공간을 선택하는 식이다. 같은 사람들과 모이더라도 장소가 달라지면 새로운 분위기에서 취향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도 독서 모임의 매력이다. 기자는 지난 모임을 한강에서 진행했다. 돛자리를 펴고 배달 음식을 먹은 뒤 각자의 책을 꺼냈다. 신선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책을 읽고, 이후에는 서로 읽은 책의 줄거리와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이야기했다. 누군가는 인물의 행동에 공감했지만, 누군가는 같은 장면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기도 했다. 혼자 읽었다면 지나쳤을 생각을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다. 이날에는 ‘북데이트’도 함께 진행했다. 북데이트는 자신이 추천하고 싶은 책을 포장한 뒤 메모지나 형광펜, 책갈피 등을 활용해 꾸며 서로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어떤 책을 고를지 정하고 포장지를 꾸미는 과정에서도 각자의 취향이 드러났다. 같은 활동을 해도 선택한 책과 장식이 달라 서로의 취향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다. 취향을 공유하고 함께하는 방식은 독서 모임에만 머물지 않는다. 서로 다른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소모임을 만들 수도 있고, 함께 스포츠를 즐기거나 언어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취향이 같아야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각자 다른 색의 물감이 만나 새로운 색을 만들어 내듯, 서로 다른 취향이 모일 때 다채로움은 더욱 커진다. 혼자라면 하나였을 취향이 둘이 되고, 셋이 되면서 새로운 즐거움으로 이어진다.

일상에 ‘활기참’을 더하는 방법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활기참’을 얻는다. 누군가는 음식으로, 누군가는 음악 감상으로, 누군가는 영상을 보며 하루를 살아가 힘을 얻는다. 이

외에도 일상 속 활력의 원천은 곳곳에 있다. 때로 사람들은 이러한 활동을 함께하고 즐거움을 나누며 더 큰 활기를 얻기도 한다. 기자에게 활력을 선사하는 곳은 바로 스포츠 경기장이다. 수천 명의 관중이 모여 함성을 지르는 그곳에서 큰 활기참을 얻는다. 물론 경기는 집에서 편하게 누워 TV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치열한 타켓팅에 도전해 경기장을 찾고, 관중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과 함께 목이 터져라 응원한다. 기자는 여러 스포츠 경기 중에서도 야구를 가장 좋아한다. 야구장은 TV 화면으로 경기를 볼 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각을 선사한다. 중계로는 전달되지 않는, 역동적인 선수들의 움직임과 관중의 함성 그리고 열띤 응원이 어우러져 현장의 생동감을 만들어 낸다. 직접 관람하는 것이야 직관)의 매력은 탁 트인 그라운드에서 시작한다. 넓은 그라운드 위로 선수들

의 움직임을 눈으로 좇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기분을 느낀다. 팀의 유니폼을 입고 먹거리를 즐기며 선수들의 응원을 따라 부르는 즐거움 또한 야구장을 찾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 무엇보다 야구 직관)의 핵심은 ‘함께 하는 데 있다. 수천 명의 관중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감정을 공유하며 만들어 내는 집단적 에너지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팀을 향해 열띤 응원을 보내고, 선수들의 노력이 만들어 낸 결실이 득점으로 이어질 때의 짜릿함이 바로 야구 직관)의 진정한 에너지다. 야구 시즌이 끝나면, 기자는 여유와 서사의 스포츠에서 속도와 긴장감의 스포츠로 ‘경기 환상’을 한다. 넓은 그라운드에서 펼쳐지는 야구와 달리 농구는 상대적으로 좁은 실내 체육관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코트와 관중석이 가까이 맞닿아 있다. 덕분에 선수들의 발소리, 감독의 외침까지 생생하게 들

린다. 이 밀도 높은 현장감은 야구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농구만의 매력이다. 경기의 템포 차이도 크다. 야구는 한 경기에 약 3시간이 걸리지만, 농구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돼 짧은 시간 안에 경기의 판도가 뒤바뀐다. 선수들이 코트를 누비며 점수를 내고, 득점의 순간들이 모여 팀이 승리하는 순간, 농구 직관)의 매력에 빠져든다. 에너지는 스포츠 경기장뿐 아니라 다양한 공간에서 얻을 수 있다. 공연장부터 사람이 모이는 카페까지 각자만의 ‘활기참’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 에너지를 채울 자신만의 장소를 아직 찾지 못했다면, 스포츠 경기를 관람해 보는 것은 어떨까. 수천 명이 함께 만드는 에너지는 직접 경험할 때 그 진가를 비로소 알 수 있다. 어떤 경기장이든지 찾아가 보자. 일상의 새로운 ‘활기참’을 더해줄지도 모른다.

누구나 좋아하는 것 앞에서는 유난히 솔직해진다. 누군가는 조용한 방에서 책장을 넘기며 힘을 얻고 누군가는 경기장의 함성 속에서 또 누군가는 낯선 사람들과 웃고 떠들며 하루를 채운다. 무엇이 자신을 편안하게 하는지 알면 나라는 사람의 윤곽도 조금씩 뚜렷해진다. 취향은 말로 다 하지 못한 자신을 대신 설명해 주는 조용한 언어다. 이 언어에는 문법의 옳고 그름이 없다. 혼자 있을 때 충전되

는 사람과 여럿이 어울릴 때 활기를 얻는 사람 중 누가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 취향의 세계에서는 등수를 매기려는 시도 자체가 어색하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니라, 그 시간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로 남느냐다. 남의 시선에 맞춘 취향은 금세 시들지만, 진심으로 좋아하는 취향은 오래도록 사랑을 지향한다. 또한 취향은 한번 정해지면 바뀌지 않는 성격표가 아니다.

고요함을 사랑하던 사람이 어느 날 응원석의 열기에 휩쓸리기도 하고 혼자자 제일 편하던 사람이 보드게임 테이블 앞에서 배를 잡고 웃기도 한다. 낯선 경험은 취향의 경계를 슬며시 넓히고 넓어진 경계 너머에서 우리는 몰랐던 자신을 만난다. 그러니 지금의 취향에 자신을 가둘 필요도 새로운 것을 지레 밀어낼 이유도 없다. 그렇다면 본인에게 금메달을 안겨 줄 종목은 무엇이고 그것

을 가장 온전히 즐길 경기장은 어디일까. 거창할 필요는 없다. 동네 카페의 창가 자리, 주말 아침의 한적한 산책로, 좋아하는 음악을 마음껏 틀어 놓은 자신의 방이면 충분하다. 어디든 자신이 자신다워지는 곳이라면 훌륭한 경기장이 된다.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만의 일상대를 떠올려 보길 권한다. 가장 높은 자리에 어떤 취향이 자리잡고 있는, 그것은 지금의 본인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 주는 ‘배달’이다.

기고칼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요즘 인기 높은 상담사가 있다. 이호선 교수다. 사이다 발언을 서슴지 않아 나도 즐겨 듣는다. 최근 그분의 말이다. “요즘 은둔하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그 가운데 20대 청년이 가장 많다”고, 가슴 아픈 일이다. 말 그대로 앞길이 구만리인 우리 청년들이 방에 들어박혀 나오지 않으려 한다니!

왜 그럴까?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내 나름대로 생각해 본다. 실패를 두려워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성공만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 분위기 때문일 것이다. 성공하지 못하면, 그것도 1등이나 반듯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대접받지 못하는 세상이 무서워 잠적해 버리는 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자. 실패는 성공의 반대어일까? 아니다. 실패는 성공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

이다. “No Cross, No Crown(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는 서양 격언도 있지 않던가?

제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실패의 가치가 무엇인지 내 경험과 지식을 들어 말하고 싶다.

첫째, 동서양 모두 겸손을 인간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는데, 실패한 사람만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다. 나는 대학입시 때 재수를 했다. 원래 바라던 국립대학에 낙방하고, 후기에 어느 사립대학에 합격은 했으나 집안 형편상 포기하고, 내가 돈을 벌어서 학교 다니려고 1년간 재수와 취업 준비를 병행한 적이 있다. 그 결과 나는 재수하는 사람의 심정도 이해할 수 있고, 세상에 나보다 나은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안다. 절대 교만할 수 없다. 세상에 태어나 한 번도 낙방한 적도 없는 사람은 세상 무서운 줄 몰라 교만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기

일썹다.

둘째, 실패도 자산이다.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의 이야기가 그 강력한 예증이다. 에디슨은 수천 번의 실험 실패 끝에 전구를 발명했다고 한다. 그렇다. 우리 대부분은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인생 길을 걸어간다. 어느 길로 가면 안되는지, 어떻게 하면 잘되는지, 스스로 차츰차츰 배워가면서 목표를 향해 다간다. 에디슨은 말했다. 자신의 실패를 “작동하지 않는 방법 수천 가지를 발견한 것”이라고. 실패를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인 태도가 결국 그를 성공으로 이끈 것이다.

우리나라 초창강의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을 연사로 모셔서 듣기 일쑤이다. ‘제바시(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라는 인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마침내 한 분야에서 뜻을 이룬 사

람들이 나와서 성공하기까지의 역정을 감동적으로 전하곤 한다.

외국은 다르다. 실패한 최고경영자(CEO)나 창업가들의 경험담을 공유하는 콘퍼런스와 강의가 매우 활발하다. 일부 프리미엄 세션이나 대형 비즈니스 콘퍼런스의 경우 수백 유료(십만~백만 원대)에 달하는 입장료를 지불하고 참관하기도 한다니 놀랍다. 실패한 기업가들이 무대에 올라 자신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망쳤는지, 파산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날것 그대로 공유한다고 한다.

내 전공은 한국의 이야기 문학이다. 성공과 실패를 키워드로 삼아 우리 인생을 단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1. 성공할 만해서 성공하기
2. 성공할 만한데 실패하기
3. 실패할 만한데 성공하기
4. 실패할 만해서 실패하기

이복규 (문화콘텐츠학부 명예교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유형의 이야기는 이 가운데 무엇일까? 3번이다. 이른바 역전이 있는 이야기를 좋아한다. 흥미도 있고 유익하기 때문이다. 인기 있는 드라마의 구조도 대부분 이 3번에 해당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다.

1번처럼 순탄하기만 한 인생은 열등감이나 조장하고, 2번과 4번처럼 불행한 결말의 인생에 대해서는 동정은 할망정 감동하거나 박수를 보내지는 않는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3번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초년의 실패를 거듭했음에도, 마침내 자신을 실현한 인생에 대해서는 환호를 보낸다.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은가?

거듭 강조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젊음의 특권으로 시도하고 또 도전하자.

| 기자의 눈 |

가을은 독서의 계절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은 이때쯤쯤이면 해마다 들리는 문구다. 제철 음식도 풍성하고, 선선한 날씨가 야외활동을 부추기는 시기임에도 유독 ‘가을’ 하면 ‘마음의 양식’인 책이 먼저 거론된다.

우리나라는 1994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정에 따라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해 제도적으로 가을을 독서 계절로 공식화했다. 이처럼 가을을 독서의 계절로 삼는 행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선선한 날씨 덕분에 도서 박람회, 책 마당 등 행사 장소가 실내에서 실외로 이동하면서, 야외에서 책을 읽는 북크닉(Book+Picnic) 행사도 활발히 열린다. 책과 공연이나 전시 등 다른 예술을 결합한 프로그램도 가을에 집중적으로 열린다. 이런 가을의 독서 분위기를 풍성하게 해주는 행사들은 독서의 진입장벽을 낮춘다.

그렇다면, 가을은 언제부터 독서

의 계절이었을까? 그 기원은 당나라 시인 한유가 아들에게 독서를 권하며 지은 시 ‘부독서성남(符讀書城南)’의 ‘등화가친’에서 찾을 수 있다. “가을이 되어 긴 비도 개고 서늘한 바람이 부니, 이제 등불을 가까이 할 수 있어 책을 펴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구절은 후대에 가을과 독서를 연결하는 대표적 이미지로 자리 잡았다.

가을에 독서하기 좋은 이유는 우리 몸에도 있다. 하지 이후 낮의 길이가 점차 짧아지면서 일조량이 줄어들면, 체내 비타민D 생성도 감소한다. 비타민 D는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합성에 관여한다. 일조량 부족은 세로토닌의 분비 저하로 이어져 우울감이 나 폐로를 느끼기 쉬워진다. 즉 가을에는 감상에 젖는, 소위 ‘가을 타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이때 독서는 우울감을 완화하는 효과와 동시

에 책 속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기능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책과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우리는 가을과 함께 개강을 맞이하며 독서를 결심하고는 한다. 그러나 새해 결심이 작심삼일에 그치지 쉽듯, 가을날의 독서 다짐은 바쁜 일상에 흐려지기 마련이다. 과제와 약속, 그리고 무심코 들여다보는 스마트폰으로 여가 시간을 채우다 보면 책은 어느새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하지만 선선한 가을바람이 부는 지금이야말로 먼저 쌓인 책을 다시 펼쳐져 즐기자.

독서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가짐을 다잡는 일이 먼저다. 독서를 미뤘었다면 이번 기회에 ‘한 달에 한 권’, ‘하루 30분’처럼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다. 그리고 침대 위나 컴퓨터 앞을 벗어나 책상에 앉아 책을 펼치

는 것만으로도 독서를 향한 첫발을 뚫 수 있다.

나이가 몰입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인 디지털 기기와의 거리 두기도 중요하다.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현대인에게 디지털 거리 두기는 독서를 위한 기본 조건이다. 일부러 스마트폰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겨버리는 것 대신, 공부 타임 앱 등을 켜두어 화면을 들여다보지 않는 것도 효과적이다.

이와 함께 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공간 확보도 필요하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 책상을 정리하듯, 독서 역시 몰입을 위한 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 평소와 다른 낯선 공간은 우리의 뇌를 각성시켜 집중력을 높여준다. 또한 도서관처럼 주변 사람들이 모두 집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장소는 우리 뇌도 그 흐름에 자연스럽게 동조해 몰입이 쉬워지도록 한다.

그렇게 책을 읽기 시작하면, 빠르게 책 속 세계로 빠져들 수 있다. 장르와 내용을 떠나서 독서라는 행위를 통해 마음의 양식을 쌓으며 새로운 세계와 관점을 체험하게 된다. 책을 덮을 때쯤이면 가을철 우울함도 사라지고, 책을 읽었다는 뿌듯함이 남는다.

우리가 직접 겪어보지 못한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독서는 문해력 저하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미디어 의존이 심해지며 글을 읽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독서는 글과 직접 부딪힐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독서의 계절, 독서 다짐을 작심삼일로 끝내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가을 독서를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김서연 기자

(kimsy050317@skuniv.ac.kr)

| 기자의 눈 |

세계라는 미로 속에서 출구를 찾길

전 세계를 누비며 세계의 경치를 자처했던 미국은 현재 또다시 중동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란과의 전쟁이 의도됐든 아니든 간에 우리는 현재 세상을 감싸고 있는 전운을 은연중에 느낀다.

유럽은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고 오랜 북지 정책과 산업 쇠퇴로 인해 외부인을 배척하며 내부의 결속을 다지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중국과 대만도 서로를 향해 걸음로는 대립각을 세우고 뒤에서는 공작을 이어 가는 것 같다.

세계가 전쟁을 준비할 때 기술이 빠질 수는 없다.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이용해 엄청난 체급 차이를 매우

며 처절한 전투를 이어가고 있다. 팔란티어의 AI는 이제 명실상부한 전쟁용 AI로 연민 같은 인간의 사치를 부리지 않는다.

러시아의 통신 없이 자신의 판단으로 작동하는 드론은 이제부터 다가을 미래의 모습을 여실히 느끼게 한다. 본부와 교신하는 능력 없이 카메라와 자체 내장된 AI로 작동하는 드론은 통신이 닿는 범위를 넘어 스스로 판단해 목표물을 사살한다.

한편, 기술적 발전과 달리 중동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가 후터 반군에게 연전연패를 당하며 자존심을 구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그들의 패배 이유가 돈은 넘

쳐나고 장비도 최상급이지만 군인들은 모두 용병이기에 생기는 일이라고 추측한다. 자신의 나라가 아니니 목숨을 바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시기가 떨어진 군대는 쉽게 항복해 버리는 것이다.

이 외에도 러시아의 유럽을 향한 조심스러운 도발과 일본의 재무장 등 다양한 징후로 볼 때 우리는 평화로운 시대의 끝자락을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울 때 우리 나라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까? 우리나라는 현재 급격히 증가한 AI용 반도체 수요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삼성, SK는 코스피

를 듣지도 보지도 못한 곳으로 데려다 놓았고, 모두가 힘든 노동 대신 자산을 굴려 돈을 벌기를 원한다.

그러나 AI와 로봇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대체,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소멸 등 다양한 문제가 경제적 성과와 함께 공존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북한군의 도발과 적대행위는 우리나라의 전쟁은 잠시 쉬고 있을 뿐이라고 말해주는 것 같다.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파병도 남의 이야기만 같은 전쟁을 코앞에 가져다 놓는다.

다양한 이유를 대며 우리나라는 결국 미로 속에서 나아갈 길을 선택

할 것이다. 그 선택은 누군가에겐 합리적으로 누군가에겐 이상하게 누군가에겐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선택이 결국 그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줄지 응원한다.

또 AI의 발전이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기를, 인류에게 후회보다 행복을 가져다주기 바란다. 극복의 역사를 가진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그다음을 맞이할 사람들이 존재하기를 염원한다.

유승윤 기자

(organicggfry@skuniv.ac.kr)

| 기자의 눈 |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네라

청마 유치환의 시, ‘행복’ 속의 시구를 그대로 제목에 차용했다. 유치환 시인을 잘 모르더라도 그의 시는 들어볼 적하다. 얼마 전엔 〈폭삭 속 앓수다〉의 관식이가 애순이를 끌어안고 유치환의 ‘깃발’을 아우성쳤더랬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그런 그가 ‘행복’에서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했다. 한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니라’라고 노래한다. 정말 사랑하는 것이 사랑받는 것보다 행복할까? 대부분의 관계에는 마르쿠스 주지적 순간이 있기 마련이라 응당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도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 내가 주는 사랑의

크기는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의 크기과 동등할 것이다. 그리고 보낸 사랑과 받은 사랑의 크기가 동등할 때, 혹은 비슷할 때 비로소 행복이 성립한다고 믿는다. 설령 사랑을 주는 것에만 만족한다 하더라도 내심 그 보답을 기대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한계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환은 사랑을 주는 것에 행복해하는 사랑,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노래한다. 정말 그는 그런 사랑을 해온 것일까?

‘행복’은 연서다.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한 유치환은 통영의 한 우체국에 매

일 편지를 부쳤다. 상대는 여류 시인이영도. 이영도의 단아한 성품과 문학에 관한 해박함에 반한 유치환은 매일 그녀를 그리며 편지를 썼다. 다만 그는 이미 자식이 있는 기혼자였고, 이들의 사랑은 이뤄질 수 없는 것이었다.

유치환의 외도는 잘못이라고 단언할 수 있지만, 과연 유치환과 이영도의 사랑까지 폄하할 수 있을까? 유치환은 죽기 직전까지 20여 년 동안 2,000편의 편지를 이영도에게 보냈다. 유치환은 버스에 치여 죽었으니, 죽는 그 순간까지도 어쩌면 이영도와 이영도에게 보낼 편지를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유치환은 이영도와 육체적인 관계

를 맺지 않았다. 그저 편지를, 마음을, 사랑을 20여 년 동안 보냈다. 문학에 관한 해박함에 반한 유치환은 매일 그녀를 그리며 편지를 썼다. 다만 그는 이미 자식이 있는 기혼자였고, 이들의 사랑은 이뤄질 수 없는 것이었다.

유치환의 외도는 잘못이라고 단언할 수 있지만, 과연 유치환과 이영도의 사랑까지 폄하할 수 있을까? 유치환은 죽기 직전까지 20여 년 동안 2,000편의 편지를 이영도에게 보냈다. 유치환은 버스에 치여 죽었으니, 죽는 그 순간까지도 어쩌면 이영도와 이영도에게 보낼 편지를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유치환은 이영도와 육체적인 관계

사랑에 결론을 내리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 변화하는 나와 대화하며 지금 나의 사랑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의 고정성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사랑의 다각화에 대한 아량이다. 지구에 사는 80억 명의 인간에겐 80억 개의 사랑이 있다. 그리고 당신에게 당신만의 사랑이 있기 마련이다. 부디 자신의 사랑을 찾고 상대방의 사랑을 안아주어 진정한 사랑을 하기 바란다.

전준혁 기자

(nicejackkyhu@naver.com)

만/파/식/적

견제가 없는 집단은 고인다

1504년 3월 13일, 연산군은 환관들 목에 나무패를 걸게 했다.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신언패다. 같은 날 그는 신하들이 그름을 말하지 않아 임금의 위에서 고립된다고 한탄했다. 입을 막은 사람이 침묵을 택한 셈이다. 연산군은 경연을 폐지했고, 1505년엔 홍문관도 없앴다. 곧은 말을 할 사람이 사라진 조정에서 폭정은 브레이크 없이 달렸다. 1506년, 신하들은 그를 왕좌에서 끌어내렸다.

산에서 “야호”를 외치면 메아리가 돌아온다. 늦게 오면 끝까지가 깊고, 흐릿하면 앞이 트여 있다. 사람은 되돌아온 소리로 자기가 선 자리를 가늠한다. 만약 신문사가 메아리 없는 산처럼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된다면 내가 던진 말은 어디에도 부딪히지 않고 흩어진다. 반대로, 수정 제안도 없이 기획이 통과된다. 메아리가 없으면 결국 내 목소리만 들을 수 있다. 처음엔 편하다고 느낄 거다. 하지만 같은 풍경이 한 학기 이상 반복되면 생각이 바뀐다. 지면이 점점 내 시선을 덮아갈 것이다. 내가 관심 없는 주제가 아이디어로 나오면 회의 테이블에서 배제될 거다. 편집장을 멈춰 세울 장치가 없는 신문사는 고인 물이 된다. 고인 물은 겉으로 잔잔하다. 그래서 썩는 줄 모른다.

2017년 대한상공회의소가 직장인 1,000명에게 회의 문화를 물었다. 회의에서 가급적 입을 닫는 투명인간형이 39%로 가장 많았고, 상사 뜻대로 결론이 난다는 응답은 75.6%였다. 8년이 흐른 지난해에도 풍경은 비슷했다. 테크 기업 인크루트 조사에서 회의가 비효율적이라 답한 직장인 중 56%가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어서’를 이유로 꼽았다. 대안상공회의소는 원인으로 뒷사람의 권위적 통솔과 구성원의 소극적 참여를 함께 지목했다. 어느 한쪽의 잘못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연산군의 조정은 독을 높이 쌓은 저수지였다. 경연과 홍문관이라는 물길을 막자 물은 갈 곳을 잃었다. 고인 물은 끝내 독을 무너뜨리고 한꺼번에 쏟아졌다. 그 물살이 반정이었다.

농부는 이런 일을 막으려고 눈에 물이 고이면 물꼬를 튼다. 삼한 자루로 독 한쪽을 허물면 물은 알아서 낮은 곳을 찾아가ն다. 물꼬를 트는 건 독을 쌓은 사람의 몫이다. 하지만 물이 흘러들 자리는 논마다 비워둬야 한다. 한쪽만 움직이서는 물이 돌지 않는다.

고인 물은 어디에나 있다. 조별과제 단독방에서도, 동아리 회의실에서도 모두가 독 너머를 바라보며 누군가 먼저 삼을 들기를 기다린다. 이번 호를 마감하며 나는 독 한쪽을 조금 허문다. 물이 졸졸 흘러오든 팔팔 넘쳐오든 괜찮다. 흐르는 물이라면 어떤 소리를 내며 와도 반갑다.

심화평 기자 (marksim@skuniv.ac.kr)

사설

[편집자주] 본 기사는 김진경, 정창배의 『대학이미지 향상을 위한 아이덴티티 전략에 관한 연구』(2006)와 이희복의 『우리나라 대학 슬로건의 분석』(2018)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껍데기는 와라, 알맹이도 남고

대학이 될 중요해지는 시대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학생들의 입학 서류보다 대학 강의실 빈자리가 더 많아지며 시작된 대학의 위기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위협과 맞물리고 있다.

2000년대 초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공급초과 단계에 진입했다. 대학 진학 희망자 수보다 국내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정원을 모두 합한 인원이 커지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대학 교육의 무용론이 제기되는 현시점에 더욱 심화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AI), 로봇 등 기술의 진화가 기존 노동시장을 변화시키면서 대학에 대한 기대와 사회적 평가 또한 달라지고 있다.

하지만 대학이 될 중요해지고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대학 홍보의 중요성은 커진다. 대학 마케팅의 시대는 이제 막이 올랐다.

최근 대학 홍보의 흐름은 신문이나 라디오로 임시 정보나 보도 자료를 전달하는 고전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고유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에 일관되게 보여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로고와 슬로건, 캐릭터 등 시각적 정체성(University Identity, UI)을 정비하는 일이 대학 홍보의 출발점으로 꼽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가톨릭대, 숙명여대, 중앙대, 대전대 등 여러 대학은 이미지 쇄신을 위해 심벌마크를 비롯한 UI를 수정했다. 숙명여대의 경우 기존 여자대학의 제한적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대의 경우에는 보다 젊고 글로벌한 이미지로의 변화를 꾀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우리대학 역시 이와 같은 흐름에 맞춰 UI를 정비해 오고 있다. 2008년 개교 61주년을 맞아 기존 UI를 교체하고, 영문 첫 글자 S와 K에 월계수 잎을 결합한 새로운 심벌마크를 선포했다. 마스코트 ‘파워프렌즈’에는 우리대학이 추구하는 CREOS형 인재상의 의미를 담았으며, 2025년에는 사용자 중심의 홈페이지를 구축해 대학의 브랜드 이미지를 온라인 공간에서도 일관되게 전달하고자 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시각적 요소 하나만으로 ‘좋은 대학’이라는 타이틀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껍데기뿐 아니라 그 속의 알맹이 역시 튼실해야 한다. 대학이 양질의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가 학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따라서 대학 홍보는 시각적 정체성을 만드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대학 구성원들이 자교에 자긍심을 가지고 학교의 이미지와 가치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연구와 학습 및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구성원 간 소통과 협력 또한 강화돼야 한다.

결국 성공적인 대학 마케팅은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대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잘 갖춰진 대학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UI는 대학이라는 무대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장치다. 그러나 잘 꾸며둔 UI라는 커튼 뒤에 수준 높은 교육과 구성원들의 애교심이 없다면, 이는 그저 모래로 쌓아 올린 성일 뿐이다.

김경민 기자 (anna2467@skuniv.ac.kr)

오늘의 책

상실을 지난 자리에서 다시 걷는 마음 - **당근밭 걷기** _안희연

문학동네시인선 214 **안희연** 시집 **당근밭 걷기**

▲ 출처 : 예스24

“삶은 굉장하다.” 안희연 시인이 신작을 준비하며 스스로에게 되뇌었다는 이 말은 시인이 지난 몇 해를 어떻게 통과해 왔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시인은 2012년 창비신인문학상으로 등단한 이후, 첫 시집부터 세 번째 시집까지 줄곧 상실과 결핍이라는 화두를 붙들어왔다. 그런 시인이 4년 만에 내놓은 네 번째 시집 『당근밭 걷기』는 앞선 책들의 연장선에 있으면서도 조금은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 시인은 출간을 앞두고 진행된 출판사와

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는, 이번 시집에 수록된 시를 쓰는 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을 잃었다”고 털어냈다. 그 상실의 흔적은 시집 곳곳에서 드러난다. 이번 시집에서 두드러지는 건 슬픔을 다루는 방식이다. 이전 시집들이 상실의 순간을 강렬한 이미지로 붙잡아 뱉다면 이 시집은 그 상실을 오래 끌어안고 살아온 사람의 목소리에 가깝다. 격정보다는 정적을, 폭로보다는 침묵을 택한 문장들이 이어진다. 화자는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기보다, 이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걷는 사람으로 보인다. 이번 시집의 새로움은 절박함을 화려하게 드러내지 않는 절제에 있다. 이 시집에서 사랑도 위로도 모두 거창한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다. 대신 묵묵히, 그리고 오래 곁을 지키는 태도로 표현될 뿐이다. 결국 이 시집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누군가를 구한다는 것이 별다른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람 곁에서 오래 머무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구출의 뜻’에서 비슷하게 드러난다. 이 시에서 화자는 백지 앞에서 마음이 캄캄해질 때, 글을 쓰느라 마음이 부서졌을 때, 자신의 마음을 알아봐 주는 단 한 사람을 떠올린다. 그 사람이 화자에게 해주는 일은 대단하지 않다. 곁에 나타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각자 우산이 있지만 나누어 쓰고, 서로의 목격자가 돼주고, 서글

픈 농담을 건네며 웃는 것, 그 정도의 소소한 행동뿐이다. 그럼에도 그런 사소한 행동들은 화자가 살아갈 힘이 된다. 이 시에서 위에서 언급했던, 거창하고 그럴듯한 무언가가 아니라, 곁에 있어 준 누군가가 사람을 살게 한다는 것이 드러난다. 표제작은 위로가 되는 그 ‘곁’을 시선의 차원에서 다시 묻는다. 화자는 넓은 땅을 상상하다가 그 시선과 맞닿는 자신을 바라보는 당근들과 그 당근을 바라보는 두더지들을 마주한다. 이 시는 독자 시선의 주체를 ‘화자’에서 그가 보는 ‘대상’으로 반전시킨다. 이 시에서 본다는 것은 무언가의 실재를 증명한다. 바라보는 것이 그것을 다 알려줄 수는 없더라도, 보여줘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는 있다. 보는 것이든 곁에 머무르는 것이든, 결국 이 시집이 말하는 위로의 방식은 같다. 상실 속에서도 삶이 굉장하다고 했던 말은 어쩌면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걸어가겠다는 다짐과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 시집은 비슷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 독자들에게 조용한 동행이 돼 줄 것이다. 얼어붙었던 마음이 다시 걷기 시작할 때, 그 곁을 지켜주는 한 권의 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황예빈 수습기자
(yebin531@skuniv.ac.kr)

오늘의 장소

예쁘게 쓰세요 - **한주 다이어리**



약속이 있어 을지로에 갔다. 을지로엔 오래된 상가들이 많았지만 군데군데 개성 있는 음식점들과 카페가 있었으며 젊은이들은 그곳에 몰려 있었다. 거리를 걸어가다, 젊은이들로 북적북적한 한 가게 앞에서 걸음이 멈췄다. 갖가지 색들로 시선을 잡아끄는 가족 다이어리들이 초가을의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그 빛나는 다이어리들을 보니 문득 SNS에서 스쳤듯이 봤던 을지로의 가성비 다이어

리 상품이라는 걸 깨달았다. 바로 ‘한주 다이어리’다. 손님 대부분은 젊은 여성들이었다. 그들은 가게 안팎을 오가며 색색의 다이어리를 펼쳐보고 표면에 새겨진 이니셜을 구경했다. 나는 시간에 쫓겨 제대로 구경하지 못하고 약속 장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약속을 마치고 마감 30분 전에 다시 찾은 한주 다이어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가게 안에 들어가 보니 이니셜 가족 다이어리 외에도 바인더, 노트 키링, 메모지, 노출 제본 노트, 스티커, 클립, 연필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나는 이름의 이니셜인 Y가 새겨진 가족 다이어리를 두 권 골랐다. 계산대로 가니 주인분이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말을 건네며 계산해 주고 계셨고, 항상 마지막에는 “예쁘게 쓰세요”라는 말을 덧붙였다.

· 주 소 : 서울 중구 충무로4길 2 1층
· 운영시간 : 평일 10:00~20:30, 주말 11:00~20:30

내 차례가 왔다. 주인분은 이니셜 Y가 낮에는 품질이어서 좀 전에 재고를 채워두셨다며, 운이 좋다고 하셨다. 그리고 역시 나에게도 건네는 한마디, “예쁘게 쓰세요”. 다이어리 두 권을 들고 가게를 나온 나에게겐 어느새 미소가 번져 있었다. 예쁘게 쓰라는 말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다. 자식과도 같은 다이어리를 입양 보내는 마음, 그 자식들이 본분을 다하기 위해 기꺼이 종이라는 몸을 내어줄 테니 팬과 함께 공함을 이뤄내라는 소망, 다이어리를 구매한 사람들이 저마다 적어 내려갈 무궁무진한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상상하며 나 또한 다이어리를 펼쳐 메모를 끄적여 본다.

김나연 기자
(nykim0130@skuniv.ac.kr)

오늘의 음악

익숙함 위에 덧칠한 새로움



▲ 출처 : 멜론



▲ 출처 : 멜론

♪ 〈하늘땅 별땅〉 - UNIS

♪ 〈안녕(Hello)〉 - 조이



▲ 출처 : 멜론

♪ 〈Pretty Girl〉 - RESCENE

“내 펍크 펍크 난 마음 쇼크 쇼크야 왜 내게 이런 슬픔을 주는지 너만이 나의 눈물을 멈추게 할 수가 있어 내 곁으로 와줘”

“햇살 가득한 날들이여 안녕 긴 잠에서 날 깨워준 아침이여 안녕 Oh 너의 유리처럼 맑은 미소가 세상은 환히 웃음 짓게 할 거야”

“마음은 예쁘게 표정은 산뜻하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잊지 말아야 하조 두 눈을 감백이면 살짝 미소 지으면 이젠 모든게 완벽하조”

90년대 여성 듀오 비비의 히트곡 하늘땅 별땅이 UNIS의 발랄한 에너지를 만나 재해석됐다. UNIS는 원곡의 통통 튀는 멜로디를 유지하면서도 특유의 키치한 하이틴 매력을 더해 트렌디한 Y2K 감성을 선보인다. 익숙함과 신선함을 균형 있게 조율한 이 곡은 기성세대에게는 향수를, MZ세대에게는 상큼하고 경쾌한 매력을 보여준다.

2003년 발표된 가수 박혜경의 대표곡 안녕이 조이의 시원하고 투명한 보컬로 재해석됐다. 경쾌한 브라스 연주가 돋보이는 이 곡은 원곡의 모던 록 스타일을 살리면서도, 속도감 있는 편곡을 더해 색다른 분위기를 완성한다. 여기에 조이의 청량한 보컬과 밝은 에너지가 어우러져 조이만의 싱그러운 매력을 담아낸다.

2세대 대표 아이돌 카라의 Pretty Girl이 RESCENE의 청량함으로 재해석됐다. 이번 리메이크는 원곡의 멜로디 라인에 감각적인 신스와 타격감 있는 드럼 사운드를 쌓아 올려 견고해진 트랙을 완성했다. RESCENE는 ‘자몽향’을 앞세워 원곡의 귀여움과 자신감을 살리는 동시에, 상큼하고 당당한 매력을 선보인다.

김서연 기자 (kimsy050317@skuniv.ac.kr)

오늘의 전시와

움직임을 멈추고 형태를 바라보다 - **브래드 월스 사진전: 역동하는 삶, 찰나의 예술**



▲ 출처 : 그라운드스이스

호주 출신 사진작가 브래드 월스의 국내 첫 대규모 개인전 《브래드 월스 사진전: 역동하는 삶, 찰나의 예술》은 발레와 아티스틱 스쿼밍, 테니스, 러닝 등 역동적인 장면을 수직 상공에서 포착한 사진 130여 점으로 구성됐다. 전시는 6개 구역으로 구성돼 작가의 시선을 따라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작가의 사진은 일반적인 인물 사진과 다른 방식으로 대상을 보여준다. 드론으로 피사체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사람의 얼굴이나 표정보다 몸의 선과 주변 공간이 먼저 보인다. 익숙한 운동과 무용의 장면도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반복되는 선과 도형, 패턴으로 바뀐다. 전시에서는 테니스와 아티스틱 스쿼밍, 스파르스케이팅 등 다양한 운동의 움직임을 통해 이러한 시선을 보여준다. 여러 사람이 함께할 때 만들어지는 형태는 위에서 바라보면 하나의 대형이나 패턴처럼 보이기도 한다.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구도에 대한 계획이 중요하다. 작가는 촬영 전 20~30개의 구도를 직접 그려보고 의상과 안무까지 스토리보드로 구성한다. 실제 촬영에서는 계획한 구도의 80%를 따르면서도 빛과 움직임 등 현장의 변수에 20%의 가능성을 열어둔다. 그가 자주 사용하는 촬영 높이는 약 10m다. 너무 높으면 사람이 점처럼 보이고, 낮으면 형태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전시 중심부에서는 대표작 ‘PASSE’를 만날 수 있다. 붉은 공간 안에 60명의 무용수가 하나의 형태를 이루는 작품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들어내는 대칭과 리듬에 초점을 맞춘다. 이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발레 공연도 전시와 함께 선보인다.

전시 후반부에는 한국에서 제작한 오리 지닐 신작 ‘Gyeol’이 소개된다. 이는 우리 고유의 춤인 강강술래를 모티브로 하며, 원 밀리언과 협업해 만든 결과물이다. 손을 맞

잡고 원을 그리는 강강술래의 반복과 대칭, 집단성에 주목해 한국적인 움직임을 상공에서 담아냈다. 한복의 움직임과 무용수들의 대형을 통해 익숙한 소재를 작가만의 시선으로 다시 구성했다. 사진으로 작품을 볼 때는 위에서 촬영한 독특한 구도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전시장에서는 여러 사람의 움직임이 하나의 형태로 연결되는 모습이 더욱 두드러졌다. 반복되는 동작과 인물의 배치가 원이나 선, 대칭적인 형태를 만들어내면서 움직임 자체가 하나의 이미지로 보였다. 사진 속 움직임뿐 아니라 작품을 둘러싼 전시장 공간의 색과 배치도 함께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작가가 익숙한 운동과 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움직임을 하나의 형태로 표현하는 방식을 더욱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평소 익숙하게 보던 사람의 동작도 다른 높이에서 바라보면 새로운 형태로 다가온다. 선과 색, 간격과 반복을 따라가며 작품을 바라보는 과정에서 작가가 포착한 움직임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연송은 수습기자
(sehnsk@skuniv.ac.kr)

· 전시기간 : 2026. 09. 11. (금) ~ 2027. 03. 01. (월)
· 전시장소 : 그라운드스이스 웁산(서울 웁산구 한강대로23길 55 아이파크)를 웁산점 리빙파크 8F)
· 관람시간 : 10:30 ~ 20:30(금·토 10:30 ~ 21:00) · 관람비용 : 20,000원

오늘의 영화

‘그것’의 정체는 무엇인가? - **사바하** (2019)



▲ 출처 : 네이버포토

《사바하》는 《검은사제들》과 《파도》를 제작한 장재현 감독의 두 번째 장편영화이다. 국내에서 생소했던 오컬트를 대중적인 장

르로 풀어올린 작품으로, 종교와 문화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집필한 시나리오가 돋보인다. 또한 CG보다 실제 촬영을 선호하는 연출 덕분에 《사바하》에서도 촬영과 소품, 세트에 집중한 감독 특유의 영상미도 돋보인다.

1999년 영월에서 쌍둥이 자매 금화와 ‘그것’이 태어난다. 금화는 평범한 아기였지만, ‘그것’은 온몸의 털과 기형적인 다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부모는 두 아이가 태어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것’은 끈질기게 살아남아 집 창고에 갇혀 조부모의 손에서 자라게 된다.

시간이 흐른 뒤, 사이버 종교의 실체를 밝히는 ‘극동종교문제연구소’ 박웅재 목사는 영월에서 한 여학생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1999년 영월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하나 둘 살해됐다는 사실과 이 모든 사실이 ‘사슴 동산’의 교주 김재석과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된다.

교주는 1999년 영월에서 태어난 여자가 이가 훗날 자신을 죽인다는 예언을 듣고 난

후,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악을 멀해야 할 의무라는 사명과 함께 아이들을 찾아 죽이길 지시한다. 이후 금화를 찾아온 추종자는 그곳에서 ‘그것’을 만나게 된다. ‘그것’은 추종자에게 교주를 의심할 살마리를 던져주며 혼란에 빠뜨린다. 추종자는 결국 교주가 숨진 진실과 마주하게 되고, 교주가 두려워하던 예언은 현실이 된다.

《사바하》는 구원과 저주, 신앙과 허상의 경계를 묻는 묵직한 여운을 남긴다. ‘뜻대로 이루어지소서’라는 진언 ‘사바하’를 제목으로 내세워, 간절한 기원의 말과 침묵하는 신의 대비 속에서 인간의 고통과 구원의 조건을 다시 묻는다. 영화는 인간의 비극 앞에서 신이 왜 침묵하는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단정하지 않는다. 대신 신의 침묵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을 통해, 끝내 답하지 않는 질문을 남긴다.

박희린 수습기자
(pphrr0904@naver.com)

오늘의 스포츠

20살 소년 드라이버, F1 월드 챔피언을 향해 질주하다

지난 9월 6일 이탈리아 몬차에서 개최된 2026 이탈리아 그랑프리에서 메르세데스-AMG 포뮬러 1 팀(이하 메르세데스) 소속의 키미 안토넬리가 우승을 차지했다. 이탈리아 국적의 선수가 자국 그랑프리에서 우승한 것은 60년 만의 일이다. 그는 할당량을 초과한 파워유닛 부품 교체로 인한 페널티를 부여받아 22명 중 19번째 순서에서 출발했지만, 본 레이스에서 무려 18명을 제치고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19번째 순서로 출발한 선수가 우승을 거머쥔 사례는 이제껏 한 번뿐이다.

키미 안토넬리는 지난 9월 13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2026 스페인 그랑프리에서도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시즌 8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이로써 그는 이번 시즌 개최된 14번의 그랑프리에서 8번 우승하고 총 12번의 포디움 피니시를 달성했다. 단 2번의 그랑프리를 제외하곤 모든 그랑프리에서 3위 이상을 수성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경기 후 키미 안토넬리의 월드 드라이버 챔피언쉽 포인트는 292점으로, 2위인 조지 러셀과 81점 차이다. 지난 2025 시즌의 경우 14번의 그랑프리 이후 1위와 2위의 포인트 격차가 불과 9점 차이였던 것을 감안하면, 키미 안토넬리의 월드 챔피언 등극이 사실상 유력한 상황이다. 올해 20살을 맞이한 키미 안토넬리가 월드 챔피언에 등극할 시, 세베스티안 베텔의 기록(23세)을 깨고 76년의 F1 역사에서 최연소 월드 챔피언 기록이 새롭게 작성된다.



▲ 출처 : AutoHebdo

키미 안토넬리는 모터스포츠 팀을 운영하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레이스를 접했다. 2022년 뛰어난 재능을 보이며 F4에 데뷔했고, 2024년 F3를 월반해 F2에서 활약하기 시작했다. 이후 2025 시즌부터 F1으로 풀타임되며 만 18살의 나이에 F1 드라이버가 됐다.

한계에 가까운 역량을 요구하고, 전 세계 최고의 드라이버들과 경쟁해야 하는 F1 무대는 아무리 천재 드라이버라 할지라도 2~3년 간의 적응 기간을 필요로 한다. 실제로 데뷔 시즌의 키미 안토넬리는 종종 기록 있는 드라이빙을 보여주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그는 F1 역사상 가장 성공한 드라이버인 루이스 해밀턴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영입된 드라이버인 만큼, 그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격정과 우려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2만 차인 2026 시즌, 폭발적인 성능의 메르세데스 레이싱 카에 완벽하게 적응하고 한층 안정적인 드라이빙을 선보이며 자신의 위치와 실력에 대한 중평을 스스로 해 나가고 있다. 그가 써 내려가고 있는 파란은 마치 제2의 루이스 해밀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1의 키미 안토넬리가 되어 새로운 시대를 개막하고자 하는 선언으로도 보인다.

과연 20살의 천재 드라이버가 최연소 월드 챔피언이 되어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전준혁 기자
(nicejackyhyu@naver.com)

